DEC 1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82 1981년11월2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November 28,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싯가 $16만의 도난담배 시중에 나돌아

캐미오, 마티네, 드모레를 찾아라!

4명의 교포에 장물은닉혐의 · 경찰수사망 확대

메트로경찰은 지난 8월 도난당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임페리알담배회사의 싯가 16만달러 상당의 담배 990상자(1상자당 50카튼)중 일부를 한국인 경영 상점및 도매상에서 회수했으며, 이 사건에 관련, 한국계 2명을 이미 입건했고, 김씨, 전씨의 교포 2명도 금주중 입건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트로 경찰 23디비전 형사과의 앤토니·페이지 형사는 23일 정해문(20 CHICHESTER PLACE #1410)씨와 장영길씨(HWY 10×LAKESHORE RD.)를 장물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장치업을 하는 정해문씨는 도난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나 도난담배가 그의 창고에서 발견됐고, 장영길씨는 경찰이 도난당한 문제의 담배 3상자를 그의 상점에서 적발하고 담배의 출처를 캐자, 이를 극구 부인했기 때문에 부득이 입건됐다고 동 사건 담당 페이지 형사는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8월중순 임페리알담배회사의 마티네·익스트라·마일드(Matinee Extra Mild), 캐미오(Cameo), 드·모리에(Du Maurier) 킹사이즈 990상자를 적재한 허즈번드운수회사 소속의 트레일러가 딕슨·로드×마틴·그로브로드 지점에서 새벽 2~3시경 도난당한데서 시작됐다.

◇담배도난사건의 중간수사경위를 설명하는 메트로 경찰 23디비존의 앤토니·페이지 형사

허즈번드(Husband)운수회사는 이 담배를 제조처인 궬프에서 싣고 토론토를거쳐 퀘벡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다.

11월초 문제의 담배중 일부가 레익셔의 UBA도매상(41 Drumm St.)에 등장하면서 경찰의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인 상점주들이 특정한 제조날자 표시가 있는 문제의 도난담배를 카톤째 다른 담배로 바꿔가기 시작했고, 이미 경찰의 사전연락을 받고 있던 도매상측은 담배를 바꿔간 사람들의 신분을 기록해 두었었다.

앤토니·페이지형사와 에드나·브라운여자형사가 1조가 되어 사복차림으로 담배를 바꿔간 사람의 상점들을 일제 수사한 결과, 약 10개의 한국인상점에서 30여 상자의 불법담배가 적발됐다.

담배트레일러를 탈취한 주범들은 24일 현재까지 경찰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불법담배를 각상점에 넘겨주던 조직망중의 일부를 밝혀냈다. UBA에 근무하는전창수씨, 에어포트로드×데리로드에서 백커를 경영하는 김두연씨등 두 한국인이 그리스인 드미트리·시데리스가 공급해 주는 불법담배를 싯가보다 싸게 일부 한국 상점주들에 은익,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리스인 앨렌·윌슨, 피터·아르반니티스, 드미트리·시데리스와 함께 기소된 정해문씨는 자기공장에, 차를 고치러 온 피터·아르반니티스가 공장 일부를 렌트해 주면 물건을 쌓아놓겠다고 해서 빈터를 빌려주었다. 이 빈터에서 적발된 것이 문제의 도난담배 19상자이다.

정해문씨가 장소를 빌려줄 당시 쌓아둘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그의 장소에서 장물이 발견됐으므로 정씨는 장물은닉 혐의를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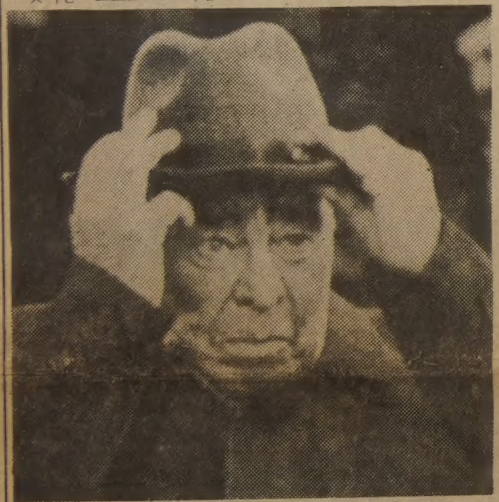
수사반은 UBA의 전창수씨와 백커상점의 김두연씨를 곧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확증이있는데도 불구, 계속 불법담배를 은닉, 사실을 부인하는 상점주들은 계속 입건할 것이라 했다.

경찰수사는 주범과 문제의 트레일러를 찾아내어 도난담배를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불법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점주들은 감추려 하지 말고, 경찰에 제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도난된 990상자 담배중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50상자에 불과, 나머지 940상자를 찾기위해 수사는 전메트로지역·도매상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수사에 협조하는 상점주들은 입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제보는 메트로·폴리스 23디비전 전화 967-2226 앤토니·페이지 형사나 에드나·브라운 형사에게 하면된다.



◇"꼭붙잡아요…"소련의 레오니드·브레즈니프 당서기장이 25일 3일간의 서독 방문을 마치고 환송식에 참석중 난데없는 바람이불어 모자를 꼭 붙잡고 있다. 올해 74세의 브레즈네프는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과 장장 9시간의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 핵미사일등의 군비축소를 다루었고, 임박한 미.소 협상에서 미.소는 최소한의무기로 동.서군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앞)

社說

당당한 상도(商道)

— 잇달은 범법사건을 보고

최근 한인관련 범죄사건들이 자주 노출되어 10여년간 쌓아온 "건실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한 코리안의 이미지"를 내리 깎고 있다.

개인적 마찰이나 소규모 불상사는 사람 살아가는데 흔히 있는 다반사(茶飯事)여서 구태여 본란에서 언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작금에 터지는 사건들은 이땅의 한인집단, 나아가 "민족"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십개국 민족들이 한 광장에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나라 사회에서 "코리안은…"하는 구설수(口舌數)에 오르고, 타민족들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연못물을 흐리게 하는 몇마리의 미꾸라지" 격인 불미로운 일들 때문에 한인에 대한 외인들의 불신감만 늘게 되어, "한인은 범법자"란 치욕적 낙인이 찍혀서야 되겠는가!

예를 들면, TTC표 위조사건, 불법담배 취급사건, 국제마약밀수단사건, 이번에는 또 임페리얼회사의 담배도난사건과 그 도난품 소지혐의로 수명의 교포가 수사대상에 올라, 심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提起)되고 있다.

이같은 불상사의 연발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는 증좌(證左)라 하겠다.

우리 민족은 이땅에 이민역사를 내디딘 이래 꾸준하고 근면한 노력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와서 이 나라 사회에 좋은 인상을 박아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요즈음 와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는 굵직한 범법사태가 빚어지곤 하여 놀람과 의분을 촉발시켜 주고 있다.

대국적 견지에서 그러한 사건들은 범법자나 혐의자 개인의 문제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 5만교포 전체의 문제요, 민족적 차원에서 근본정신부터 쇄신해야 할 중대숙제인 것이다.

왜 그리 되었을까?

범법의 근본요인(要因)부터 파헤쳐, "위대한 캐나다 주민" "자랑다운 문화민족 코리안"에로의 과감한 도약! 정신개조부터 단행해야할 시기에 이르른 것을 절감한다.

최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에 공통된 숨은 원인을 들자면 대충 아래와 같다 하겠다.

① 지상목표를 황금에 둔 배금(拜金)사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데서 오는 부작용.

② 성급한 치부(致富)에의 안달.

③ "요령껏 지능적으로 잘하면 감쪽같이 되겠지" 하는 얕은 꾀의 소행.

④ 너무 순진(無知)하거나, 먹빛 의리로 묵비권, 혹은 발언회피로 공범자로 말려들어가는 사례 등등….

①의 경우, 돈이란 생활에 편리한 방편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그릇 인식하여, 일확천금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법이나 사회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저질(低質)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②의 경우, "100리도 한 걸음부터"(Step by Step)란 속담대로 착실하고 꾸준한 전진이 바람직한데, 목적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급함이 범법도 불사(不辭)하는 맹목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③의 경우, 오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더우기 캐나다는 어수룩한 것같아도 보다 철저히 제도화된 나라인데, "눈 가리고 아옹"식은 일시적 미봉책일 뿐,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만 약지, 남들은 다 어수룩"으로 얕보는 얄삭한 처세술은 아예 잠재워야 할 것이다.

④의 경우, 집 빌려주거나 남의 물건을 맡거나 사들일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약밀수사건의 임태호씨와 도난담배사건의 정해문씨의 쓴 체험이 강한 울림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임씨는 집을 빌려주고 집을 날려준 것이 불법에의 협조혐의를 받은 것이며, 정씨는 위장포장된 도둑담배 상자를 자기 창고에 보관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정의 여지가 있으나, 당국은 "법은 법"이라는 견지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같은 일에 직면했을 때마다 각별한 경계심과 지능적 처사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즉각 당국에 연락하는 시민다운 재빠름을 지녀야 하겠으며, 선심이나 무관심으로 악에 이용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더우기 값싼 의리로 부정을 감싸거나 비밀을 지켜주는 등 처사는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는 뼈아픈 가르침을 이번의 도난담배사건이 실감나게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싯가보다 싼 물건을 사라고 권유 받았을 때 싼맛에 냉큼 사들이는 경솔한 처리를 굳이 삼가야 할 것이다. 상품이 파격적으로 쌀 때에는 어딘가 구린점이 있음을 상인이라면 모를리 없을 것이다. 도둑물건이 아니면 위조품이거나 날조품일 것이니, 파는 자가 자선사업으로 그리 싸게 팔리는 만무하다.

교포상인들이 부정물품 판매, 장물취득등으로 법망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은 상업의 정도(正道)를 당당히 걷는다는 마음자세 결여탓으로 지적되겠다.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바르게 걷는다는 신념에 철해야, 하늘 아래 떳떳하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다 하겠다.

우리는 해외 멀리 와서까지 나라 망신, 민족의 뒷손가락질을 받어서 되겠는가? 생각할수록 숙연해진다. 우리들 각자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로 인해 겨레에 누가 끼쳐져서는 안된다"는 굳은 의지에 투철할 때 공신력을 잃는 불미로운 소행은 우리들 모두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명예로운 캐나다 시민으로서, 또한 대한의 겨레로서 당당하고 꿀림 없는 생활인이 되어 이땅을 활보하도록 교민 모두가 굳게 손잡고 밝고 행복하게 살아나가기를 재삼 다짐해야 하겠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공 고

재미한국 과학기술자협회에서는아래와 같이 한국인 장학생을 모집 합니다

— 아 래 —

①목 적 : 미국및 캐나다 대학원에서 자연과학 또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과학도에 대하여 여름방학동안 한국내 연구소및 산업계에 연구조수로써 종사하게하여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증진 시키고자함.

②자 격 :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학생
● 한국계 2세및 이민온 사람으로 미국및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현재 자연과학 또는 공학을 전공하고있는 대학4학년생 또는 대학원생.

③선발인원 : 약간명(20명 내외)

④장학내용 : 왕복항공료, 연구소및 산업기관에 3개월간 체재비, 1주일 산업 시찰.

⑤구내연수기간 : 1982년6월1일~8월31일 까지(3개월간)

※응모지원서 또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분은 다음전화로 연락바람.
신복균 : B)667-3598, R)494-4906
김종상 : B)592-2881, R)881-8349

재미한국 과학기술자협회
온타리오지부 신 복 균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 — 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 — 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5W

G·M, 일시적 조업중단

5300여명 단기휴직

캐나다제너랄모터는 계속된 불경기로 인한 자동차 수요감퇴로 일시적 조업중단, 5천여명이 잠정적으로 일자리를 잃게(Lay-off)됐다.

GM캐나다는 25일 미국과 캐나다의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여 스카브로, 오샤와, 윈저공장 가동을 부분중단,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5,316 명의 종업원을 단계적 휴업시킨다고 발표했다.

30일부터 윈저공장 트랜스미션 파트에서만도 338명이 무기한 휴직당하고, 379명이 임시휴직케 됐다.

GM캐나다 니콜라스·홀 대변인은 프론트·휠 드라이브 트랜스미션을 생산하는 윈저공장은 하루 4천개의 생산능력이 있으나미국GM차의 판매부진 으로 근래 반정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브로의 밴트럭공장은 12월7일부터 1주일조업중단, 1,800명의 종업원이 영향을 받게되고, 오샤와공장도 내년 1월3일부터 1주일간 문을 닫는다.

동사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세인트·캐서린 부품공장 가동을 일주일간 중단, 962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제2태권도장 열어

브람톤 중국인 켄·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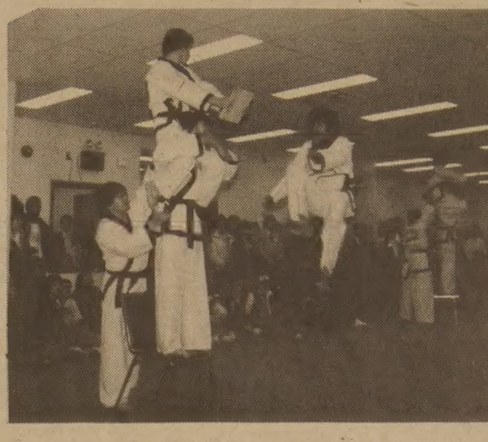
77년 캐나다에 이민, 브램톤에 태권도장을 갖고있던 중국인 켄·청씨가 같은 지역에 새로운 도장을(169 Queen St.E.브램톤) 열고 지난 21일 개업 기념 시범대회를 가졌다.

캐나다태권도협회 이태은 사무총장(본보 오타와 지국장)등 한국인 사범 들과 아치·디큰 브램톤시장등이 시범대회를 참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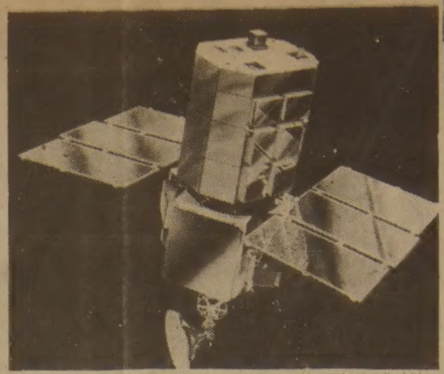
청씨는 홍콩에서 한국인 김인석사범에 사사하고, 71~74년 한국에 태권도유학, 정경덕씨 도장에서 초단을 땄다.

한국인 부인과 결혼, 한국어도 유창한 켄·청씨는 그동안 캐나다에서도 태권도협회에 가입, 한국인과 유대를 계속 가져왔다.

사우나 시설등 헬스크럽 장비도 갖춘 동도장에는한국인 5명을 비롯, 약 150명의 수련생이 있다.



◇시범경기에서 공중 날아 송판깨기장면.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수리하는 시험을 맡을 솔라 맥시멈 위성의 조감도. 미국의 우주과학자들은 83년부터 이 계획을 시도할 예정이다.

UPI女職員 拉致 강간

深夜 권총強盜에… LA事務室밖 駐車場서 女記者 1명에도 金品강탈…數時間후풀려나

〈LA-AP〉 UPI 통신사 남가주지역 스포츠편집자와 여직원이 23일 밤 11시께 LA다운타운 UPI 사무실밖 주차장에서 권총강도에게 돈과 귀중품을 빼앗기고 여직원은 납치되어 강간을 당한 강도·납치·강간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당국은 여직원이 납치된지 수시간 뒤인 24일 새벽 2시30분께 풀려났다고 밝혔다.

사건당일밤 스포츠편집자 리처드·토쉬스(26세·산페드로)는 여직원 리타·마키언스카스(21세·글렌데일)의 차에서 내려 웨스트 2가에 있는 UPI 건물뒤에 놓은 자기차에 갈아 탈려고 하던 중 권총강도를 만났다.

3대의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따라 들어온 다음 첫번째 차에서 뛰어내린 권총강도가 토쉬스와 마키언스카스의 돈과 귀중품을 강탈했다.

토쉬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휴가를 위해 5백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권총강도는 자기자동차의 트렁크에 여직원을 태워 모텔로 납치한 다음 다른 강도 한명과 함께 강간을 했다.

피해자들은 권총강도가 28~31세 가량의 라틴계 남자로서 검은 머리에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교황암살미수범 단식

소량의 당의정 섭취

지난 5월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암살미수로 종신형을 받고 중죄수 감옥에 수감중인 터키 회교극렬분자 메멧·알리·아크가는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아크가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있으며, 설탕이 함유된 소량의 당의정만 섭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시〉

서울·손님 (2)

박 옥 선

희끗해진 머리
수년만에 나눈 대화는
맨발로 마주하는 벗이기 전에
흰 옷자락,
당신 말씀 열어주는
잔잔한 눈이었읍니다。

이날의 새 만남,
빙 둘러앉은 너와 나
어언 자정(子正)을 넘어
찬바람에 몸을 뒤채이는
이국의 새벽은 11월 비에 젖는데

도란도란 이어지는
민물처럼 안겨오는
"성령의 숨결"은
훨 훨 님의 모습을 빛어주었읍니다。

하늘 위 영광을
땅에로 끌어오는 울림이
한몸 다 태울 사랑이
한 아름 뜻을 모은 정다움이
감사의 눈물로 줄줄이 젖어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복음말씀이
이브의 능금 그 근심 지나
방안 한가득 무지개 서리었읍니다。

언어(言語)에 시간에 말려
해그늘에 허덕이는
휠새없이
주름지는 눈동자 위에
지구의 동쪽 끝 한점
내 어머니집에서
훌쩍 와서
안부 나누고 가는 당신의 손님

그 벗의 옷자락에서
다시금
돌무덤 쩡한 아침
"님의 부활"을 읽었읍니다。

〈건강상담〉

임산부의 영양관리

필수영양소: 단백질, 비타민B, 무기질

건강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부는 영양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주요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및지방이다.

이같은 영양소들이 임신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자.

◇단백질(Pro tein): 태아의 조직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양은 임신중 상당히 증가한다. 대부분의 북미인들은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있다. 한조각의 치즈와 고기한 덩어리(Pork Chop), 달걀하나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하다.

◇칼슘: 칼슘은 중요무기물의 하나로 뼈를 형성, 발육시키는데 중요역할을 한다. 만약 칼슘섭취가 부족하면 태아는 임신부의 뼈에서 칼슘성분을 빼앗아가므로 임신부의 뼈가 약해진다. 우유제품들이 칼슘섭취에 가장 적합하다.

◇철분(Iron): 임신중에 임신부의 혈액량은 평소의 2배가량이 된다. 혈액세포의 생성을 위해선 다량의 철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태아는 임신부의 몸속에 있는 철분을 빼앗아간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이내 피로해 지며 병감염에 대한 저항력이약화된다.

철분은 간, 신장, 마른 과일, 곡물, 건포도등에함유되어 있으나 음식에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철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비타민B군: 엽산(빈혈의 특효약)도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엽산은 세포분열과 헤모글로빈 형성에 이용된다. 비타민B의 부족은 자연유산이나 태아에 손상을 준다. 임신하기전 피임약을 계속 복용한 임신부에게는 특히 충분한 엽산의 공급이 필요하다. 엽산은 간, 잎이 많은 푸른 채소와 땅콩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C: 엽산, 철분, 비타민A 등은 임신중 평소보다 많이 필요한 성분이다. 그러나 비타민C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타민C는 오렌지, 참외, 풋고추, 캐비지(양배추)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임신중 비타민C의 과다섭취는 좋지 않다. 과다섭취는 태아로하여금 비타민C 중독을 일으켜 태어난 후 정량의 비타민C 섭취를해도 비타민C부족으로 괴혈병에 걸릴 확률이 짙다.

◇비타민A: 건강한 피부와 내부 각 기관의 형성을 위해 비타민 A가 필요하다. 이것도 임신중에 평소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다.

◇비타민D: 칼슘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보조로써 비타민D가 필요하다. 〈캐나다식품안내〉(Canada's Food Guide)책자는 하루에 400I.U.(비타민의단위)정도의 섭취를 권한다. 이것은 우유 5컵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주요영양분, 비타민, 철분, 이외에도임신부에게는 적정량의 나트륨(소금성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섭취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민가정의 가족제도 요동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재조정

김보경 (심리학자, 철학박사)

〈참고〉: 아래 글은 지난 7일 토론토노년회가 주최한 교양강좌에서 강연한 내용을 줄인 것이다.

1. 부부간의 문제

가족제도는 시대성과 환경성에 의하여 계속 변화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백년전에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졌던 일부다처제도가현대한국에서 계속 통용되지 않은것처럼 농촌생활에서부터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도시화, 산업화되는생활은 또한 전통적 가정제도를 변화하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사회, 한국에 있었을때와는 현저하다른 사정하에 있게 되는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에 있어서 그 가족제도,또는 가족관계에 어떤 변동이 오리라는것은 쉽게 예상될수 있다. 이민이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전통적 한국 가족제도의 요동에 따른 가족 성원간의 문제점을 (1)부부간의 문제 (2)부부와 자녀간의 문제, 그리고 (3)노부모와 부부간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일반적 가정에서는 남편이 직업을 갖고 아내는 가사를 돌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된다. 가정에 머무는 아내가 하루종일 직장에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에게 그릇을 씻거나 방청소를 부탁하는 일은 생각밖의 일이 될 수있다. 그러나 이민가정에 있어서는 부부가 모두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직장이라는 한가지 조건으로도 남편과 아내의 일의 부담이 이미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한다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고, 계속 한국에서 아내가 전통적으로 담당해왔던 밥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기보는 일등을 전담하기를 거대할 때 우리는 쉽게 아내쪽의 과로와 이에 따른 심리적 불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남편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은 각각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가사에관한 일은 여자가 할 것으로만 강조하지만 아내가 남편 혼자 나가 일하고 돈벌어 올 것을 기대할 때는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민가정의 특수한 직업적 경제적 조건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일해야 하는 사정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변동을 의식하게 함과 동시, 새 사회에서 강조되는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남성을 언제나 여성의 우위에 두고 남성위주의 이중적 윤리관을인정하는 한국사회에서온 우리 이민가정의 여성들은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독립인으로 인정하려는 새사회의 태도에 대하여 쉽게 매력을 얻게 되고,이는 새사회에 빨리 동화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

아내의 서구화는 직접적으로 남편의 가정에서의지배권과 권위를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남편은 쉽게 여성의 서구적 경향에 대하여 반항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남성의 이기적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서구화가 남성위주의 전통적한국 가족제도의 파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반발할만한 것이지만 여성(아내)의 동등사상에로의 변화는 몇가지 큰 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다 서구화된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간에 있게 되는 가치관에 대한 갈등을 중계자로서 무난히 타협하게 한다. 지배받는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감지한 어머니는 남편의 고집과 자녀들의반항 사이에서 그 누구 보다도 효과있게 타협점을 제시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아내의 서구화는 새 사회에서 위축된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해 가게하는 직접적동기도 된다. 여성의 새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 언어능력, 사교성등은 남편의 사교내지 그 활동범위를넓히고, 백인사회에 용기있게 뛰어들어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케 하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남성들의 우선의 불편, 형식적권위등에 구애됨이 없이 의무적, 종속적, 이중적 부부관계에서 보다 동등적, 상호보상적 부부관계에로 진출함과 동시, 부부간의역할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활환경에 따라 분담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

또 아내는 남편이 새 사회에서 경험하는 좌절감, 긍지의 상실등 심리적측면을 감안하여 조급함없이자기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도록 인내함과 동시 남편이 평상시에 언제나 간직해 왔던 캐나다에서의 꿈과 이상이 물질적 안정이라는 조건때문에 완전하깨어 지는 일이 없도록 고무하고, 또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주선해 주어야 되겠다. (계 속)

◇캐네디언 오페라단이 크리스마스 특선으로 내놓은"아말과 밤손님"(Amahl and the Night Visitors) 중 아말역으로 분장한 데이비드 융(오른쪽). 12월26~30일 하보프란트(Harbourfront)에서 공연된다.

숙명여고 동창회 및 X-마스 파티

금년도 숙녀회 X-마스 파티겸 망년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1년12월19일(토) 오후7시
장 소: 이정신 회장댁(1473 ADAMSON ST. MISS.)
전화: 276-3255
회 비: $10.—
연락처: 276-3255
총무: 236-2218

숙명여고 동창회

보성동창회 연말파티

보성동문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성동창 에서는 X-마스 파티겸 연말파티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1981년12월26일, 오후7시
장 소: 회장님댁(78 ELMBROOK CRES)
회 비: 커플당 $30.—
연락처: 안경영씨(621-9510)

보성고등학교 동창회

와우동산 파티

즐거운 성탄과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고저 와우동산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 여러분 부부동반하여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1년12월22일(화) 오후6시
장 소: 284 Mill Rd. Etobicoke (Master Place Party Room)
연락처: 여 정 웅-242-5194
최 남 해-298-7806

홍익대학교 동문회장
이 근 호

제1회
칼빈신학교 졸업식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저희 칼빈신학교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회 졸업식을 거행코저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 소: 갈보리 교회당(3817 LAWRENCE AVE. E.)
시 일: 1981년12월6일(일)오후6시
졸업생: 성서과 1명, 신과 11명

1981년11월

칼빈신학교장 계 화 삼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회장 : 이형인
부회장 : 임철원
〃 : 김명정
이사장 : 김태진
부이사장 : 전윤식

제7회 정기총회 준비완료

26일 저녁6시 개최될 금년도 정기총회를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 Don Vally Holiday Inn에서 모이게 될 총회는 많은 회원들이 신집행부 회장단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 대단한 열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단 협회 회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요, 전교민의 관심사 일뿐 아니라, 협회와 관계를 맺고있는 제업체 도매상 매뉴팩처등도 주시하고 있다.

바쁜 중에도 회원들이모여올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 임원들은 이미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제작, 배부했으며, 지난 22일(일) 밤 10시에협회 사무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도 23일(월) 9시30분 협회사무실에서 이제까지의 선거인명단을 재검토하고, 원만한 선거관리를 위해 원칙대로 밀고 나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역사를이루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여러 회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협회로고(LOGO) 잘 이용해 주기를

지난 11월20일 협회는81년도 연차보고서를 우송하면서 그 안에 협회 로고를 2개씩 배부하였다.

이 로고는 현집행부가오랜동안 연구검토하여 제정한 것으로 3,000개를 제작하여, 우선 회원스토어의 정면도어에 부착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며, 그다음 회원들 차의 전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만든 것이다.

둥그런 원형에 청색과적색을 통해 O.K.B.A.의글귀가 영어로 표시되었으며 "실협"이라는 한글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협회원들의 부지런함을상징하는 수탉과 올빼미의모형이 삽입되어 있어 성실과 근면의 봉사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각회원이 로고를 자랑스럽게 이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 필요한 회원은 요청해 주면 보내줄 것이라고 담당자는 밝히고 있다.

〔정정〕: 협회 발행 1981년차 보고서내용

※ 페이지 4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연혁
1978. 11 정기총회 …… 사이에
1980. 1 정기총회

(삽입) 1979. 1 곽정열 부이사장이 과도집행부를 구성 운영함.

※ 이사명단중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에 우인도씨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해야함.

〈문예작품공고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2) 두번째의 변

죽어도 다시는 캐쉬(Cash)대에 설수 없을것같은 마음은 몇개월 동안에 점점 없어지고, 이번에는 방향을 달리해 꼭 두사람이 카운터주위에 있게끔 미리 타임·스케줄을 짰다.

장사는 잘 되는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식구가 가져다먹는 부식비등을 고려한다면 그리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 밖이 밝을때는 나혼자 있어도 무서움이없었지만 좀 어둑어둑해지면 혼자있을수 없어서 꼭 시누이와 아니면 시동생과같이 일을 했다.

둘째애의 임신으로 8개월이 가까워올 무렵, 뚱순이가된 모습으로 의자에가만히 앉아있기 보다는 상점 안이라도 걷는게 운동겸 좋을것 같아서 텅빈상점안을 이리저리 걷고있을때, 핸썸하게 생긴 투기 혼혈아가 걸으로 반사되는반뜩반뜩 빛나는 색안경을쓰고 안으로 들어왔다. 보통 손님들과 그러듯이 날씨얘기며 이런저런 얘기들을주고 받았고, 그러는 동안 그는 요것 저것을 찾으며 상점안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다. 마침내 조그만 쿡키 하나와 포테이토칩을 사가지고 친절한 인사와 더불어 상점을 나갔다.

나간지 약2분후 그가 다시 들어왔다. 내가 뭘 잘 잊었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그 큰키의 허리를 카운터안으로 바짝 굽히며 한자나되는 시커먼 식칼을 내목에 들이대는게 아닌가? 난 질겁을 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후 정신이 깨어났을때는 벌써 캐쉬대에 있는 돈은 모조리 쓸어갔고, 난 카운터뒤의 담배진열대에 뒷머리를 부딪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고, 담배는 온 사방에 흩어져 너절히 깔려 있었다.

그때 바로 들어온 손님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경찰을 불러 주었다. 온 몸이 정말 바들바들 떨렸다. 말도 잘 나오질 않았다. 어쩌면 태아에게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이 아찔했다.

경찰들이 몰려왔다. 앰브런스를 부를까 물어본다. 난 찬물 한 컵을 마신 후 괜찮다고 했다. 정신을 차려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특히나 코밑의 이상스런상처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그와는 한참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얌체같은 코밑 수염을 길렀고, 바로 코밑에 독특한 상처가 두둑하게 있었다.

카운터 위를 보니 그가 샀던 쿡키와 칩이 그대로 있어서 경찰이 지문(Finger Print)을 위해 가지고 갔다. 이젠 돈이고 뭐고 진짜 상점엔 나타나 기도 싫었다.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대신 상점경영을맡아서 해야만 했다. 난 그동안 건강한 둘째 딸을 분만했고, 다시 파트·타임으로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

일하는 동안 시커먼 도둑걱정은 안해도 좋았고, 내 건강한 몸으로 아픈 환자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직장에 다니게 되니 차라리 기쁘고, 큰 기분전환도 되었다.

(계속)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⑱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가꾸미는 이번에는 나무가 서 있는 호수가에 캠프를 쳤다. 그는잠자기 전에 엄청난 재물을끌고온 개들에게 전나무가지로 잠잘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사지를 쭉 뻗고 누웠다.

잠을 자면서도 가죽이불밑에 단단하고 강한 총이있음을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다. 총이 여자보다 더훌륭한 것 같아 가꾸미는 마치 자기 부인과 함께 잠자는것 처럼 만족해 했다.

다섯개의 개팀이 컴컴하고 파란그림자에 쌓여있는 호수가에 도착했을때 아직도 불은 완전히 꺼져 있지않았다.

가꾸미의 개들은 이들이 접근하는것을 듣고 조용하게 짖어댔지만 황홀한 꿈속에 있던 그는 개짖는 소리에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개들이 늑대를 보고 짖는줄로만 알았다.

그는 다섯사람이 얼음위에 납짝 엎드려 호수가의 낮은 곳으로 올라와 캠프속으로 들어왔을 때야 겨우 잠이 깼다.

후리후리한 다섯 사람들은 썰매에서 뛰어내리자곧바로 불이 있는데로 올라왔던 것이다. 그들은 단한사람을 상대하기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한사람만 총을 갖고 접근해 왔다.

가꾸미는 일어나 앉아서 이들 낯선 사람들을 꼬나보았으나 그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얼어붙은 시체마냥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디안들은 이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도 없었고 개의하지도않았다.

그중 한 인디안이 썰매에 매 놓은 개들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꾸미가 전나무로 개집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서 자기들의 깡마른 잡종 개들을 거기다 재우려했다. 순간, 가꾸미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자 그는 행동을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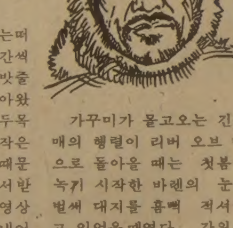
총을 잡자마자 인디안들이 볼 틈도 없이 총구에서 불이 튕겨 나왔다. 그들중 세사람은 눈위에 딩굴었다. 총에 맞은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다른 운좋은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썰매를 집어타고 자기들을 향하여 쏘는 총알이 호수의 얼어붙은 고요함을 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호수밑으로 도망쳐버렸다.

아침이 되자 가꾸미는떠났다. 썰매에 짐을 약간씩 실은 3개의 개팀이 밧줄에 묶여 그의 뒤를 쫓아왔다. 죽은 세사람은 모두목에 쇳조각으로 만든 작은 영상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가꾸미는 목사에게서받은 비슷한 서너개의 영상을 부적주머니에서 꺼내어 아무렇게나 시체위에 던졌다. 그래서 가꾸미는 그의 혁대에 있는 부적주머니에서 목사가 준 십자가영상들을 모두 떼어 죽어있는 시체위에 경멸적으로 내동댕이쳐 버린 셈이다.

가꾸미는 계속 썰매를몰았다. 수림지대를 떠나오던 그날 그는 아무것도 거칠이 없는 평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는 자기의 물건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사람을 셋씩이나 죽인것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14. 생명의 법을 어긴 사람



가꾸미가 몰고오는 긴썰매의 행렬이 리버 오브 맨으로 돌아올 때는 첫봄에 녹기 시작한 바렌의 눈이 벌써 대지를 흠뻑 적셔놓고 있었을때였다. 강위의 얼음을 건너자 몇달 전에 그가 떠나온 이글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어린애가 밖에서 놀다가 그가 돌아 오는것을 먼저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글루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일킬릴 일킬릴 키야이"(인디안이 쳐온다!) 이것은 이사람들이 몇 세대를 두고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래된 애기긴 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일킬릴떼들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할미우트의 캠프로 쳐들어와서 이사람들을 죽이던 무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옛날에 듣던 경고를 기억하고 사람들은활에 화살을 재고 사슴 잡을 때 쓰는 예리한 창을 가죽집에서 꺼내들고 뒤뚱거리고 넘어지면서 밖으로 뛰어 나왔다. 그들은 습격에 대비할려고 뛰어나왔던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킬릴떼가 아니고 자기들이 입고있는 똑같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겨누었던 활을 내리고 창을 땅바 닥에 꽂았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 앙 콜 쇼 ◆◆◆◆

지난 제1차 밍크쇼에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앙콜쇼를 다시 갖게 된 이유는 교민들의 **재청**에 의해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교민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품목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순에 앙콜쇼를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품 목 :
● 모피제품(밍크, 친칠라, 링스, 무스, 라쿤, 각종 FOX, 비버)
● 보 석 : (다이야몬드, 에메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 등)
● 고급시계류 :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 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中小企業도 海外진출 努力"

全대통령 大企業과 협조 情報교환토록

"까다로운 融資절차 간소화 公共기관 財政赤字幅 줄여야"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大企業은 해외진출에 역점을두어 경제성장에 노력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을 시도해야한다』고 말하고 『기업은 해외활동범위를 넓혀 정부와 同伴者的입장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月例經濟動向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大企業은 중소기업육성을위해 原價節減을 위한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등으로 相扶相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남는豫算 적당히 처리하는 폐단 根絶"

全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융자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를듣고있는데 貸出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정부와 정부出捐및 公共기관에서는 財政赤字幅을 줄이는데 모든지혜와 감독권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年末에 예산이남으면 적당히 사용한것처럼 꾸미는 폐단이 일부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전국민의 경제교육, 勞使협조에 있어서의 人間관계 정립등을 거듭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가 끝난뒤 宋春鶯씨(52·江原道原城郡)와 裵在萬씨(42·全南寶城郡上津漁村계장) 등 2명의 새마을지도자에게 새마음훈장 協同章을 주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회의참석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했다.

南美농업移民 17명 全대통령이 茶菓會

全斗煥 대통령은 24일하오 金鉉榮씨(28·농업) 등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등 南美농업移住예정자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다과를 베풀며 이들을 격려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千炳株보사부장관과 金永逸한국해외개발공사사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랜스·크로스 집행위원(뉴질랜드)과 얀·스트보위원(노르웨이)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釜山버스惨事사건 國會에서責任추궁 柳民韓총재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4일 釜山버스惨事사건에언급, 『이같은 충격적인 사고가 再發되는것은 안전대책에 허술한 행정당국의 惰性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회에서 사고의 책임과 예방대책등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景氣指數 첫「마이너스」

작년 10월이래 經常收支 2億7千萬弗黑字

申부총리報告, 無信用狀수출은 늘어

9월들어 부진했던 수출신용장 來到실적에이어 10월에는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해온 산업생산, 제품出荷도 주춤해져 경기종합지수가 작년10월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의 下向勢로 전환됐다. 24일 全斗煥 대통령에대한 月例경제동향보고에서 申秉鉉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0월중 산업생산, 出荷는 전달보다 각각 0.7%, 0.6%가 감소, 實物경제의 회복속도가 약간 주춤해지고있으며 수출신용장來到실적도 작년같은달대비 9월의 마이너스14.6%가 10월에도 마이너스10.3%에 머물러 여전히 부진했다고 보고했다. 申부총리는 그러나 不況과 輸入가격의 鈍化(전년같은달대비0.7%증가), 국제금리하락에 따른 外債利子부담감소로 10월중의 經常收支는 2억7천1백만달러의 흑자를보여 올해 연간경상수지적자폭은 억달러내외에서 억제될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신용장來到부진에도 불구, 선박등 無信用狀수출이 활발하여 금년들어 10월말까지 수출은 1백78억달러로 작년동기보다 25.1%가 늘어나는 增加勢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사정은 民間與信28.9%, 총통화27.3%가 늘어나 비교적 높은 통화공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10월들어 도매, 소비자가 모두 0.5%떨어져 도매물가는 작년11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78년 4월 이후 처음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요인은 공산품보다는 쌀값과 과실류등 농산물가격에 따른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밖에 건축허가면적(9월실적)으로본 투자동향은 住宅부문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상업용, 공업용은 9월들어 전년동월대비 21.9% 22.1%의 증가세로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機構조정 下位職 減員없어"

金총무처, 常傭雜給職 일반전환

金容烋총무처장관은 24일 국회 內務委에서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농수산부에 소속돼야 하지만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위한 지방관서의 보호측면에서 내무부소관이 된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이대로두지만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지는등 여건이 조성되면』 농수산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정부기능을 재검토, 능률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때문에 하급공무원의 신분상손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常傭雜給職은 작년에 있던 사람중 일반직으로 돌렸다고 밝히고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에 많이 이양했지만 하부기관의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선기관에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고 앞으로 지도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美, 카리브海전담 새軍司令部 창설

【워싱턴23日AP=聯合】 미국방성은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좌익세력의 득세와 이지역에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무기반입이 급증하는데 따른 美정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카리브海를 전담할 새로운 미군사령부를 창설했다.

問題쉬워 高得點 많을듯

어제 大入學力考査 文敎部, 正答 처음발표

지난해보다 문제가 쉬웠다. 24일 실시된 82학년도대입학력고사의 문제를검토한 일선고교교사, 입시전문가등 관계자들은 이번 학력고사의 출제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쉬워졌으며 따라서 좋은성적을 얻는 수험생들이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늘어날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고사를끝내고나온 수험생들도 예년에비해 비교적 밝은표정들이었는데 관계자들은 이번 학력고사의 난이도로 보아 전반적인 성적분포는 출제가 유난히 쉬웠던 재작년(80학년도)수준과 비슷할것으로 예상했다. 80학년도의 대입예비고사는 3백점이상득점자만도 81학년도 1천8백82명의 2배가넘는 4천48명이었다. 한편 이번학력고사에서 고득점자가 늘어난것이 예상됨에따라 앞으로남은 대학의지망, 지원단계에서는 합격이확실한 대학과학과를 찾으려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치열한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이번 대입부터는 복수지원할수 있는 대학이 2개대학으로 제한돼있어 「허수」지원은 지난해보다 크게 완화될것으로 보이지만 대학별지원자의 성적분포는 발표하지 않기때문에 최종전형대학을 결정하는데는 지난해 보다 더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대학최종전형까지 앞으로 남은 입시일정은 ▲고교내신성적의 확정 ▲학력고사성적 및 전국순위 발표(1월7일) ▲2개대학 지원과 각지원대학의 복수지망학과선택(1월13일까지) ▲최종전형대학결정(1월22일) ▲미달대학의2차전형 ▲추가모집절차등이 차례로남아있다.

한편 문교부는 24일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과목별 정답을 발표했다. 문교부가 대입고사의 정답을 발표하기는 지난69년 대입예비고사제도 시작이래 처음있는일인데 문교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문제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었다. 문교부가 학력고사의 정답을 발표하기로한것은 학력고사 출제의 정확성에관한 국민의 신뢰를얻고 출제 당국이 정답을 직접 발표 함으로써 수험생의 자기채점에 도움을 주기위한것이다.

★관련기사10·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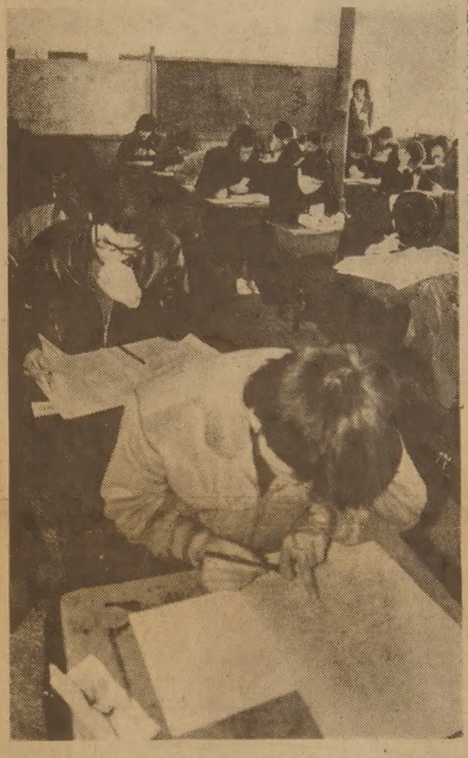
금년政黨보조 4억

금년안에 各政黨에 國庫補助 4억원이 지급될예정이다. 權正達民正·辛相佑民韓·申國民등 3黨사무총장들은 24일모임에서 통상적인 정당운영과 정기국회대책과 관련한 院內정책활동을위한 자금보조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모으고 정부에대해 제2차國庫보조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平和案 上程합의의

아랍聯盟 頂上회담서 논의키로

【페즈(모로코)24日UPI=聯合】 아랍연맹 정상회담의제를 토의중인 아랍외상들은 2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8개항의 중동평화안을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사우드·알·카이잘 사우디외상은 이날 사우디의 중동평화안을 아무런 변화나 수정없이 오는25일 개막되는 아랍연맹정상회담에 상정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우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새로운 제안이 나온다면 이를 검토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등은 모든 국가들이 중동지역에서 평화롭게 살권리가있다는 사우디안의 7번째조항이 이스라엘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것이라면서 사우디안에 반대해왔다.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가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이날 59만 1천여수험생들은 상오9시부터 하오4시50분까지 온정성을다해 문제를 풀어나갔다。

通禁해제 5~6월 準備필요

南總理, 3黨대표要談 教育稅처리에 협조당부

주요政黨대표들은 지난날의 極限대립적인 國會像을 탈피, 「協商과 타협의 對話국회」가 되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하고 通禁해제와 保衛法폐지및 8·3조치폐지 건의에 대해서는 與野가 국회에서 共同으로 發議할것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通禁해제등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키로 與野名黨대표들에게 약속했다. 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 柳致松民韓黨총재, 金鍾哲국민당총재등 3黨대표는 23일하오6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南悳祐국무총리초청으로 만찬모임을 갖고 이들문제와 교육세와 새해예산안의 삭감폭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서 정부와 民正黨측은 교육세를징수, 「교육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줄것을 요청했다.

税法개정 異見對立 여전

表決처리 가능성

국회財務委의稅法審査小委는 24일 그동안 합의를 보지못한 부분에대한 막바지 의견절충을 벌였으나 與野의 의견차이를 보였다. 民正黨은 계속 근로소득세의 人的控除額을 올리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野黨측은 ... 이날 회의에서 民正黨은 未合意된 부분에대해 少數의견을 붙여 小委案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社會漫評

灰都를 樹都로…

北傀 暴力革命수출强化

30여紛爭國에 6千명軍事요원

【서울=聯合】 北傀의 이른바「폭력혁명수출」이 최근들어 크게 강화, 금년10월현재까지 30여개 紛爭國들을대상으로 약6천여명의 군사요원을 파견한것으로 밝혀졌다. ... 北傀의 이같은 폭력혁명 수출 확대는 쿠바軍과 비슷하게 蘇聯의 대리전쟁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짙다는점에서 관심을 모으게 하고있다.

地平線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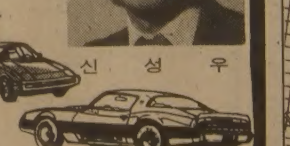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도넛샵: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½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½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500, 주매상: $7,000,
주매상: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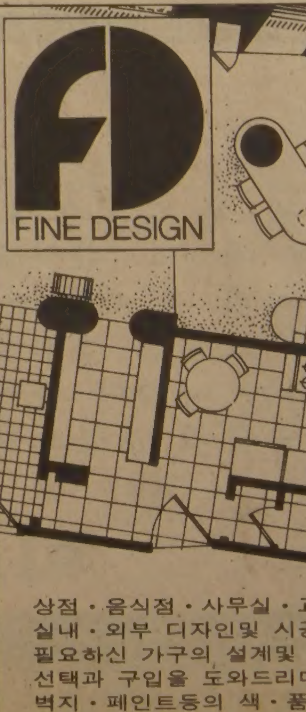
공고
"한인회관 이전에 관한 공청회"
1981년도 정기 총회에서 위임된 한인회관 이전문제에 관하여 공청회를 갖고저 하오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1년12월2일(수요일) 하오7시
장소: 한인회관
한인회관 관리위원장

MARVIN STARR
취급종류
●PONTIAC: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BUICK: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각종VAN트럭
●데모카
●USED CAR

신성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264-2311 (PAUL SHIN)



FINE DESIGN
상점·음식점·사무실·교회·주택등의 실내·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펱·카텐 벽지·페인트등의 색·품질·선택·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덕남

81년 豫算支出權限 연장 可決로
레이건、對議會 劇的승리
非常支出법안 拒否權행사에 議會、政府에 유화措置

【워싱턴23日UPI=聯合】미하원은 23일 82회계연도가끝나는 82년9월30일까지 총4천2백79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의회의 비상지출법안에 대해 레이건대통령이 이를 「예산의 파산」이라고 주장, 거부권을 행사하자 행정부에 대한 유화조처로 당초 레이건 대통령이 요청한대로 81회계연도의 연방예산지출권한을 오는12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제안을 찬성 2백21, 반대1백76으로 가결시킴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에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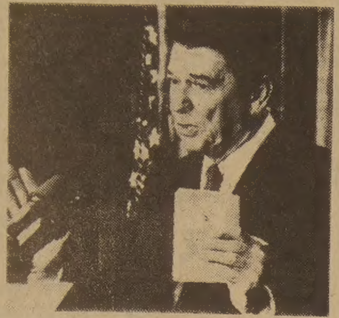
레이건 대통령은 미하원이 총4천2백79억달러의 의회 비상지출법안에 대한 재가결 시도(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3분의2이상의 다수결로 재가결시킬수있음)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이 당초 요청했던대로 81회계연도의 예산지출권한을 12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하는 제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명백히 만족을 표했다고 백악관의 한보좌관이 전했다.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81회계연도연방예산지출권한의연장안은 23일저녁(현지시간)중으로 상원에서 통과된후 레이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레이건 대통령이 일단 이안에 서명하게되면 잠정적으로 기능이정지됐던 연방정부의 각기관들은 업무를 일제히 재개할 수 있게 된다.

美의회는 당초 지난10월1일부터 시작된 82회계연도 예산으로 총4천2백79억달러규모의 비상지출법안을 통과시켰었으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 비상지출법안이「예산의 파산」을 초래할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대한 서명을 거부, 내각에 연방정부기관의 업무를 필수적인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따라 의회·행정부의 관계가 급히 냉각됐다.

레이건 대통령이취임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발동, 對의회 강경대응책으로 맞서자 하원의 민주당지도자들은 81회계연도의 예산지출수준을 82년2월3일까지로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 의원들의 지지를 모색했으나 공화당의원들이 이절충안이 국방지출의 삭감을 포함, 내년 2월3일까지 총25억달러의 예산절감을 요구하고있다고 반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타결이 되지못했다.

하원의 공화당의원들은 민주당지도자들의 절충안에 대한 또다른대안으로 당초 레이건 대통령이 요청했던대로 81회계연도의 연방예산지출권한을 오는 12월15일까지로 연장시키자고 제안했으며 43명의 하원내 민주당의원들이 이를 찬성함으로써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레이건 美國대통령이 23일 의회의 임시예산안에대한 거부권행사에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있다.【워싱턴23日AP電送=聯合】

新敎徒들 부분罷業
北아일랜드 IRA테러·英정부 微溫策 항의

【벨파스트23日路=聯合】북아일랜드 거주 신교도들은 23일 에이레 공화군(IRA)의 계속되는 對신교도 테러행위와 영국정부의 미온적대응책에 항의하여 벨파스트를 비롯한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부분파업을 벌였다.

신교지도자 이언·페이즐리 의원의 주도하에 단행된「행동의 날」파업은 당초 계획된 전면파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많은공장과 교통망이 한나절동안 마비돼 커다란 혼란을 빚었다.

페이즐리의원은 이날 1만여명의 파업지지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아일랜드거주 신교도들이 IRA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곧「제3의 군대」를 결성할것이라고 다짐하고 북아일랜드의 에이레병합을 결코 수락할수 없다고 선언했다.

蘇、중거리核 감축用意
브레즈네프 美「0의選擇」제의는 拒否

【본23日AP路=聯合】서독을방문중인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은 23일 유럽배치核미사일을 제거하자는 레이건미 대통령의 최근제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신 우호의 제스처로 소련로키트들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용의가있다고 밝혔다.

브레즈네프는 이날저녁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이 베푼 만찬회연설을통해 오는 20일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美·蘇군축회담을 앞두고『우리는 우호의 표시로 유럽배치중거리核미사일을 일정수준에서 일방적으로 감축할수있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발언은 레이건 대통령의 지난주 對蘇군축제의에 대한 첫번째 공식반응으로 그는 자신의 이같은 제의가『소련측 입장에 있어 새롭고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중거리核무기의 급격한감축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우리측이 관심을 갖고있는한 우리는 수십基가아니라 수백基의 중거리核무기를 기꺼이 감축할 용의가있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는 미국이 5백72基의 유러·미사일배치계획을 잠정적으로 유예할경우 소련은 우호의 표시로 다수의 SS20미사일을 동결함은 물론 중거리核무기일부를 철거할 태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슈미트수상과 브레즈네프는 이날 브레즈네프의 본도착직후 첫번째 양국정상회담을 갖고▲군축및 전략무기회담▲중동문제▲동남아문제▲남부아프리카사태▲중남미문제등을 광범위하게 토의했다.

美蘇군축期待 위험
新華社통신 논평

【北京24日路=聯合】중공은 오는30일 제네바에서 시작될 미·소군축회담에 희망을 거는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24일 주장했다.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은 이날 한 장문의 논평기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미·소양국이 비록 그들의 파괴력을 공동인식, 특정협정체결에 도달한다할지라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그이행을 거부할것이며 설사 양국이 다수의 제한규정을 준수한다하더라도 핵무기제조기술의 획기적발전이 협정을 한장의 단순한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日 改閣焦점은 후임外相에

인사이드
아베 가장有力…硬直된 對美·對韓관계 突破口모색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스즈끼일본수상은 행정개혁국회가 끝나는 30일 개각을 단행한다.

작년 6월 오오히라수상의 돌연한 사고로 정권을 인수한 스즈끼수상은 이번 개각으로 내년11월에있을 수상재선의 정치작업을 끝마칠 계회이다.

당초 다나까(田中)후꾸다(福田)양파의·균형、대립속에서 부상한 스즈끼수상은 黨3役을 스즈끼 다나까 후꾸다 3파의 트로이카체제로 구축, 안전시키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까소네(中曾根)행정관리청장관과 고오모또(河本)경제기획청장관을 유입시키는데 성공, 안정의 기틀을 잡고있다.

스즈끼내각은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측이 요청한 60억달러의 경제협력문제와 美의회의 방위력증강결의안의 제출등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歐美각국으로부터 불만이 속출하고있는 무역불균형 문제등 산적한 외교문제를 안고 있다.

「그때문에 이번 개각의 초점은 산적한 외교문제를 해결해야할 외상이 누가 되느냐에 집중돼 있다.

지난 10월29일 自民黨본부에서 열린 黨외교조사회와안전보장조사회 합동회의는 소노다외상의 설토장이 됐다.

自民黨소속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소노다외상의 갈팡질팡외교를 비판했다.

『동전한푼 깎을 수 없다는 등의 자극적인 말을 삼가라』『美·日공동성명은 구속력이 없다는 발언은 외교적 失言이 아닌가』등 소노다외상의 외교적 실언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총력안보를 주장하는 스즈끼수상과 오오무라(大村)방위청장관 그리고 소노다외상의 머리문자를 따서 일본의 외교가 SOS라고 혹평하는 소리도 있었다.

이런상황속에 새외상에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아베(安倍)政調회장이다.

후꾸다파의 제2인자이며 知韓派인 기시(岸)前수상의 사위라는 인맥으로 보아 그가 외상으로 등용된다면 韓·日관계는 새로운관점에서 잘 풀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나까소네파의 사꾸라우찌(櫻內)黨간사장, 다나까파의 다께시다(竹下)前大藏相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있다.

스즈끼수상은 내년 黨총재재선을 앞두고 일본외교의 기틀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은물론 가장가까운 이웃인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외교에 약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기때문에 최후의 카드인 외상 교체로써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소노다외상의 교체를 계기로 스즈끼수상은 美·日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60억달러의 對韓經協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에 韓·日외상회의를 열어 양국정상회담의 개최등을 협의할것으로 전망된다.

스즈끼수상은 黨운영의 핵심인 간사장에 다나까파의 니까이도(二階堂)씨를 지목하고있으나 후꾸다파는 당권을 쥘 간사장에 다나까파가 기용되면 세력균형이 깨질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파벌정치속에서 스즈끼수상의 첫개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나의 이력서
〈國字·元一漢〉

元一漢 ②

祖父 호러스·언더우드1世
病院·고아원·敎育사업에 첫손
고아 金奎植 양육·새문안敎會 설립·國文法 펴내

나의 할아버지 호러스·G·언더우드1세가 신학교 재학시절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때 신학생들이 각 선교지역사정을 연구하면서 한국사정을 연구한 학생이있어 외국선교사업 의용단회에 그결과를 보고했다고한다.

이보고서의 내용은 한미조약이체결되고 선교할 문이 열리었으나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는 않고있다는 것이었다. 이보고서를 본 할아버지는 목사가된후 印度로 가기를 단념하고 네덜란드개정교회의 外地宣敎部에 한국으로 보내줄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거절을 받았고 다음에는 미국北長老敎會에 과견해 주기를 바랐으나 또한 같은 대답이었다.

그때 마침 뉴욕시내 어떤 교회에서 후대를 갖추어 목사로 와줄것을 청해왔고 이를 수락하는 회답을 써가지고 우편함에 넣으려고 할 때에 『한국은 어찌하려느냐?』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우편함에 넣으려던 편지를 도로 거두어 손에 든채 北長老敎會 外地宣敎部 본부를 찾아가 총무인 엘런우드에게 상의했다. 엘런우드는 그의 열성에 크게 감동했고 한국선교사업에 써달라는 지원금이 들어와있는 터여서 파송을 결정하게되었다.

이때에 北長老敎會 선교부에서는 일본의 東京, 중국의 北京, 上海등지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의 선교사업 개시를 서둘러달라는 독촉을 받고있었다고 전해진다.

할아버지는 이렇게해서 한국에 제1번으로 도착한 개신교목사가되었다. 뿐 아니라 한국에 처음으로 고아원을 창설한 분이기도하다.

그는 4·5세된 고아 하나를 따뜻하게 보살폈는데, 고아로 자라난 그가 훗날 할아버지의 비서일을 맡아했고 새문안교회장로가된 金奎植 박사이다.

할아버지가 처음했던 일은 전도보다는 병원사업 고아사업 교육사업등 각종사업이었다. 교회를 세운 것은 한국도착 3년후인 1887년 9월이다. 14명의 교인들이 우리집 사랑방에 모여 두사람의 장로를세워 당회를 조직한 것이바로 새문안 교회가 된것이다.

또 후계선교사들을 위하여 한국어문법과 韓英字典 간행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1889년에는 기독교 문서운동을 위하여 한국예수교서회를 조직、여러해동안 회장일을 맡아보았다.

할아버지가 미국을 떠날때에 친구들 중에는 독신으로 해외만리에 가는것을 걱정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甲申정변후의 혼란한 시기에서도 무난히 활동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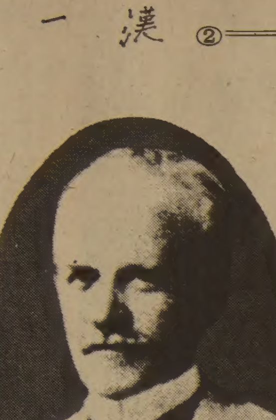
그러다가 서울에서 활동한지 3년이지나 같은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던 여의사 릴리아스 호튼양과 결혼했고 신혼여행으로 탐험을 겸해 전도여행을 다녔다함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즉 신부는 가마타고 신랑은 말타고 서울서부터 開城 平壤등지를 거쳐 江界에 이르러 선편으로 압록강을 끼고 義州에 이르러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였다고 한다.

이런 여행을통해 한국의 인정풍속과 언어습관을 익혔던것인데 여행도중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고 호랑이가 있는 계곡인줄 모르고 달밤에 둘이서 산책을 나갔다가 혼난일도 있다고한다.

나의 할머니는 의료사업에 봉사하기위해 파송됐었기때문에 결혼후에도 이일을 계속하였으며 겸하여 明成皇后의 侍醫를 맡았던일은 기록에 잘 나타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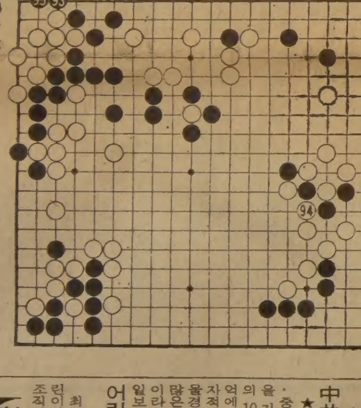
당초 나의 할아버지는 금교령이 풀려있지않은 상태에서 될수있으면 숨어서 전도사업을 하려던것이 閔妃의 시의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일약 문제인물로 등장하게된 셈이었다.


◇나의 할아버지 호러스·G·언더우드1세。그는 한국에온 최초의 개신교목사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6譜93～59　(덤5집반 각5시간)

白(7段)河燦錫(1敗)
黑(7段)徐奉洙(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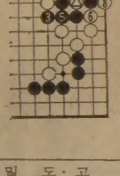


黑93의 패쓸을 보고 河7단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패를, 받을까 말까…』. 그리고 받을경우의 다음수단과 안받을경우에는 변화 및 이해관계를 정밀히 계산하는 것이다.

대체로 전문기사가 생각할때는 이미 결정된 착수라도 『좀더 나은 수는 없나』하는욕심에서 시간을 쓰게된다. 이것이 아마추어와 다른점이거니와 지금의 河7단은 그계산이 빗나간 모양이다. 白94로 패를해소하고 좌상귀를 깨끗이 포기한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千慮一失일줄이야. 귀를 포기한 손실은 무려 33집이나 된다. 河7단도 당시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겠지만, 우변을 빵빵 따내고 선수를 잡으면 된다는 계산인데 이결과는 우변의실리가 20집남짓이니 우선 손해를 본것이 분명하다. 단지 문제는 발빠른 白의 선수활용. 과연 어디에서 그만한 그이상의 보충을 할는지 아리송한 장면이다.

白、조급한「패해소」



95자리에 받아준다음 참고도처럼 黑1로 패를 따내면 白2잇고 黑3에는 白4로 △자리에 따내서 이하白6 때 黑7로 1자리를 따내야하는데 이때 白8로 넘어가서 아무런 異常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白이 패를 해소해준 덕분에 좌상귀를 잡은 黑은 일거에 대세를 만회했다. 다음 白은 어디다 귀중한 선수를 행사할는지。【一凡】

海外토픽

中共 張씨총1억명
★나라세우면 7번째 大國

중공의 10억인구중 張씨 성을 가진 사람의 수는 총인구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1억에 달하고있어 이들이 자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세울경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많은 인구를가진나라가 될것이라고 중공관영공인(工人)일보가 보도.【北京=聯】

어린이 密賣성행
★말聯서사내1백19만원

최근 말레이지아에서는 어린이밀매가 성행、몇몇 밀매조직이 톡톡히 수입을 올리고있다고 말레이지아의 뉴스·스트레이츠·타임즈紙가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어린이 밀매행위는 아무 죄의식이없이 어린이를 팔려는 부모와 아이가 없거나 하나밖에없어 더 많이 가지려는 부부들간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중개역할을하는 어린이 밀매조직은 경찰에 들통나는일이 거의없는데다가 대단한 폭리를 취하고있는데 남자어린이는 1천7백달러(한화약1백19만원) 정도이고 여자아이는8백달러(약56만원)를 더 받을수있다는것이다.【조호레·바루(말레이지아)=AP】

誤算電話料에 自殺
★프랑스서 告知書받고충격

프랑스북부 에브류에서는 최근 잘못계산된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은 한 가입자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연금을받아 살아가는 노약자인 이 가입자는 6천프랑(약8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전화요금고지서를받고 쇼크를받은 나머지 전화국에대한 수차례 항의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

항의를받은 전화국측은 결국 3백70프랑(4만7천원)으로 전화요금을 정정고지했으나가입자가이미사망한뒤였다.【에브류(프랑스)=AP】

알렉시스 아르게요 2차防禦戰 KO勝

【라스베이가스22日=聯合】프로복싱WBC라이트급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29·니카라과)는 22일(한국시간) 벌어진 타이틀 2차방어전서 美國의 로베르토·엘리존도를 7회에 KO시켰다.

아르게요는 이날의 승리로 통산73승(53KO) 4패를 기록했다.

波軍보유 미사일

추계 기동훈련에 참가중인 일단의 폴란드군인들이 경계훈련을 위해 기종불명의 地對空미사일 발사대로 접근하고있다. 폴란드 인터프레스통신이 제공한 이사진에는 훈련실시장소및 시간이 언급되어있지않다.【런던23日AP電送=聯合】

波정부、곧 全國에軍投入
都市 越冬준비 집중支援

【바르샤바23日AP·UPI=聯合】폴란드정부는 곧 전국의 모든 시·읍들에 군대를 파견, 도시지역의 월동준비를 집중적으로 도울것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국영방송은 이날 발표된 정부성명을 전하면서 당국이 농촌지역의 식량·에너지의 유통질서유지를 위해 지난달 실시했던 對民지원을 위한 1차군동원계획의 성과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후 2차로 전국의 도읍지를 상대로한 월동지원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事件전모 내달公開
"봉투 기재額數 기억안나"
앨런、사례금 1萬弗說을반박

【워싱턴23日UPI=聯合】리처드·앨런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23일 자신이 일본기자에게 영부인 낸시여사와의 회견을 주선한데대한 사례로 받은 1천달러가담긴 봉투에 1만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할수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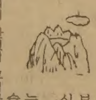
앨런보좌관은 이날 미ABC방송기자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문제의진상이 적절한 시기에 규명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스피크스백악관대변인은 앨런사건의 전모가 법무성의 조사가완료되는 오는 12월중순 공개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사건을담당할 특별검사의 선임여부도 이때 결정될것으로 전해졌다.

"謝禮金은 1천弗"
문제의 日誌해명

【東京23日UPI=聯合】일본의여성잡지「주부의 벗」社는 23일 지난1월 레이건미대통령의 부인 낸시여사와의 회견을 주선해준 리처드·앨런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에게 전달한 사례금이 1만달러가아니라 1천달러라고 밝혔다.

메아리
오늘의 白頭山



백두산은 우리 겨레의 마음의 고향이다. 장백산맥의 주봉으로서 해발 2천7백44m의 이 영산은 동방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있다. 우리 민족설화에서 환웅이 신시를 베푼것도 백두산이요 역사상의 단군조선·부여·고구려·발해·금·동진·청등의 발생지 또한 백두산과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산정에있는 깊이 3백여m의 화산호、천지의 절경도 신비롭거니와 산허리에서 기슭으로 빽빽이 들어선 인적이 미치지 않은 원시림이 이루는 경관의 아름다움은 정평이 있다.

송화강의 원천이되는 토문강과 압록강의 양강은 백두산 마루로부터 약10리 아래에서 시작이되는데 이 두강의 분수령에 정계비는 있었다. 숙종38년인 서기1712년에 우리와 청국대표가 서로 백두산에서만나 해발2천2백m 지점에 정계비를 세웠던것인데 고종17년인 서기1880년에 이르러 청국은 느닷없이 토문은 두만을 뜻한다는 생떼를 쓰게되어 서로 사이에 시비가 일었다.

1909년 만주침략의 야욕에 불탔던 일본은 저의 마음대로 북경에서 청국과 회합하고 토문강에서 훨씬 남으로 내려온 두만강이 한국과 청국과의 국경선이라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말았다.

이와같은 불법적인 일본의 만행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간도와 거기에살던 교포들이 청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백두산정계비도 이른바 만주사변때 일인들에의해서 없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우리의 건국신화와 상관하고 겨레의 마음의 귀의처인 백두산은 그뒤의 온갖 나라의 풍상을 드높은 자리에서 굽어보며 오늘도 의연히 천고의 신비를 간직한채 서있다.

그러나 분단의 뼈저림속에있는 당대의우리는 그웅위한 모습과 신령스런 자태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려볼뿐 가볼수가 없다.

일찌기 1927년에 육당 최남선이 백두산참관기에서 백두산에 빗대어 겨레의 슬기와 민족혼을 일깨웠던때와는 또다른 감회로 백두산을 생각하게 된다.

지난79년 중공령을통해 백두산에 오른 영국 생태학자 푸어박사가 전하는 백두산의 지금은 갈수가 없으나 언젠가는 가야할 웅위한 모습이 다시금 우리에게 통일의지를 다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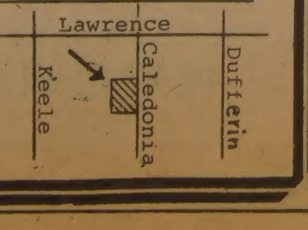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 금주의 스페샬 ◆◆

Nov. 30 - Dec. 12/81

			SPECIAL
Neilson Chunk		1.20x15¢	$10.65
"	Reg. Choco	36x40¢	9.59
Rowntree CHOCOLATE	"	"	"
Cadbury	"	"	"
Hersey	"	"	"
Lora seco	"	"	"
Lowney	"	"	9.95
Lee's snow ball		36x25¢	6.00
Breath savers		12x30¢	2.55
Y & S pipes, cigars, Mr. chew		48x10¢	3.05
Pargum		245x 2¢ ($1보너스 pack)	3.09
Estro pops		36x25¢	7.00
Sostgranola bar		40x35¢	7.00
Tottifay 391g	1 time	$6.59	4.29
Peter puck		24x25¢	3.95
Moirs bag candy		24x25¢	3.45

DOMINION SMALLWARES
크리스 마스때 까지(일요일 오전중만 OPEN 합니다.
920 Caledonia Rd (Cash & Carry에 한함)
789-7214(MR. 김)



Kim's 미용실

새로운 스타일의 민감한 컷트와 파마 전문

금번 저희 미용실 내부를 확장 수리하여 교민께 더욱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신부화장전문
- 드레스 대여
- 남.녀 파―머 환영
- 세련된 커트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

웅담 팔면 罰金500弗

캘리포니아州 1년이하 體刑까지도

漢醫院 수사

도손監督官 "市中 것 가짜"

미캘리포니아주 수렵국은 최근 한방약재로사용하는 웅담을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사람도 적발되면 최고5백달러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수렵국의 존·도손감독관은『외국에서 수입하는 웅담이나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사들여온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현재 로스앤젤레스지역내 3백17개소의 한방원을 대상으로 수사를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내년 世界女子排球 弱體브라질등과 E組에

한국、예선통과 무난

내년9월 南美페루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브라질등과함께 예선E조에 속했으며 美國과 中共은 F조, 蘇聯은 東獨과 함께 예선D조에 포함됐다고 대회조직위원회가 23일 대한배구협회에알려왔다.

모두 28개팀이 출전할 이번 대회는 예선6개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펼친 뒤 조별 상위2팀씩 12개팀이 준결승리그(6개팀씩 다시 2개조로 나눔)에 오르게된다. 준결승리그 2개조에서는 상위 1·2위팀이 다시 결승리그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예선E조를 무난히 통과, 준결승리그에 오를것으로 보이는 한국은 준결승리그서도 日本을 제외하고는 다소약한 팀과 맞붙게돼 결승리그까지는 별 어려움없이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여자대표팀은 지난78년 蘇聯 레닌그라드에서 4위를 차지한바 있다.

◇예선조 출전확정팀

▲A조=페루·체코▲B조=쿠바·폴란드▲C조=日本·불가리아▲D조=蘇聯·東獨▲E조=한국·브라질▲F조=美國·中共

84年 올림픽中繼料 異見조정안돼 未決

【로스앤젤레스22日AP=聯合】 84년 올림픽TV 해외중계에 관한 계약이 중계료에 관한 異見이 아직 조정되지 않아 19일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측과 32개국 유럽TV방송연맹측간의 회담에서도 타결되지 않았다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亞洲경기연맹 總會 韓國代表 3명참석

오는 26·27일 印度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연맹(AGF)총회에 참석할 대한올림픽위원회(KOC)회의 대표 3명이 22일 상오9시10분 KAL便 떠났다.

새싹文學賞에 李海仁修女

童詩「바다일기」「저녁노을」등으로

修女 詩人 李海仁씨가 새싹회가 제정한 새싹文學賞을 수상했다. 李海仁수녀는 處女시집「민들레의 영토」(76년)와 두번째시집「내 魂에 불을 놓아」(79년)를 통해 求道의 길을 가는 여성 수도자의 內密한 情景을 보여준 유니크한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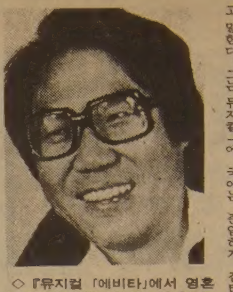
수상작은 새싹회지 季刊「새싹문학」(81년5월호)에 실린「바다일기」「저녁노을」「하늘은」「글짓기숙제」「잔디위에서」등의 童詩작품인데李수녀는 첫시집 민들레의 영토 를 내기전부터 童心을 노래한 詩를 다수써왔다。童心을「바다일기」등의동시작품은수도자로서의어렵고深遠한世界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린이의 마음으로돌아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간 점이 돋보인다.

「산 위에오르면/있잖니파그 맘때/바닷가에 나가면/활활타다 남은 저녁노을/혼자보기 아까와/언니를 부르러간 사이/몰래 숨어버리고만 그노을을/어떻게 잡을수가 있겠니/…우리의 꿈은노을처럼 곱게 타올라야 하잖겠니/때가되면 조용히/숨을 줄도 알아야하지 않겠니」(저녁 노을 中에서).

李수녀는 필리핀 세인트루이스大를 수료하고, 현재 釜山 올리베타노 聖베네딕토 수녀회에서 일하고있다.

母國팬에게 새 면모를

뮤지컬「에비타」出演하는 趙英男



◇『뮤지컬 「에비타」에서 영혼이 깃든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在美가수 趙英男씨。

劇中해설자「체·게바라」맡아

뉴욕舞臺서 감명…"바라던 役"

故國에서 神學著書 출판 계획

인터뷰

在美가수 趙英男씨(37)가 내달24일부터 27일까지 국립극장대극장에서 극단現代극장·한국일보社, 일간스포츠 공동주최로 공연되는 뮤지컬「에비타」에 출연하기 위해 지난20일 귀국했다.

굵은테 안경과 청바지의낯익은 모습그대로 혼자 귀국한 그는『母國의 팬들에게 뮤지컬 가수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뮤지컬「에비타」에서 해설자「체」역을 맡는다. 극중인물「체」는아르헨티나 출신으로 南美에서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주도했던 직업적 혁명가 체·게바라가 모델.

이 뮤지컬에서「에바·페론」과 함께 사실상의 주인공이다. 극중의「체」는 에비타의 집요한 권력추구욕을 때로는 코믹하게 감싸주고 때로는 신랄히 풍자하고 종국에는 준엄하게 질타하는 심판자 노릇을 한다.

『연출을 맡은 金相烈씨로로부터 출연교섭을 받았을때 기꺼이 승낙을 했읍니다. 뉴욕무대를 보고 재빠른 몸놀림과 다양하고 풍성한 음역으로 노래를 부르는「체」역에 반했기 때문이었죠.「체」역은 제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 수업을 쌓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귀국직후부터 매일상오 9시~하오6시까지 에비타출연진들과 함께 연습에몰두하고있는데 에바·페론역의 신인 李京愛는「기본 성량이 다듬어진 대담한 연기자」, 후안·페론역의 柳仁村은「유연한 몸 동작이 훌륭하고 재주가 많은 후배」라고 각각 칭찬하기도 한다.

그는 79년 美트리니티大신학대학을 졸업한후 줄곧「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가수로서 전력투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방황해 왔다고 고백한다.『他人의 영혼을 구제하기에는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 대신 영혼을 위로해 주는 가수생활을 고집하기로 했읍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이어『미국에 있는동안 복음가수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책을 썼읍니다.「한국기독교신앙의복음전파에 관하여」란 신학대학 졸업논문을 엮기쉽게 제 나름대로의 경험도 집어넣어 5백페이지 분량으로다시 쓴 것이지요. 지난5년동안의 공부를 정리한것이어서 무척 애착이갑니다』라고 털어놓는다.

내년2월까지 고국에 머무르는동안 TV나 밤무대출연은 가능한 사양하고 책을 출판해내는 일에만 매달리겠다고 덧붙인다. 【李】

歷史의名言

폴란드의 作曲家,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神童이란 이름을 듣고 파리로 나와成功, 文人 藝術家들과 친교를 맺었으나 女流作家 상드와의 戀愛는 유명. 祖國愛와 貴族 취미위에 성립된 섬세하고 세련된 作曲및 피아노연주로명성을 떨침.

女人생각을 오랫동안 떨쳐버린 뒤 라야만 靈感과 樂想이 떠오른다。

女子를 멀리해야 靈感과 樂想이 떠오른다

쇼팽 <1810~1849>

피아노의 詩人 쇼팽 (Chopin, Frèdèric Francois)。

그는 피아노藝術에 실로 前人未踏의 새경지를 개척했을 뿐아니라 피아노를 유일한 무기로해 祖國 폴란드를 러시아의 壓政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피끓는 투쟁을 전개한투사이기도하다。

바르샤바에서 난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음악적 천분을보여 8세때엔 이미 피아노協奏曲을 연주했고 15세때엔 벌써 자기작품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6세나 年上인 女流作家 조르지·상드와 사랑에 빠진것은 1835년 그가 25세때 일이었고 이때부터 그의 예술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유명한 作曲家치고 女性과의 스캔들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히 여성들이 많이 따라다닌 사람으로는 리스트와 쇼팽이 대표적이라할 수 있다。

상드와의 사랑은 그의 運命을 좌우할만했다。

상드는 남자도 꽤 많이 홀렸고 승마복차림에 시가를 물고 독한 술을 거침없이 퍼마시는 社交界의 女王이었다。

거기다 小說을 쓰는 족족 크게 히트하는 판이었으니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세력이었다고할까…。그들의 마요르카섬의 생활이 시작될때 쇼팽의 나이는 28세。

가벼운 肺結核을 앓던 그의 요양을 위해 이 섬에 온 것인데 시기가 나빠 雨期에 접어들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한다。

상드는 惡女는 아니었으나 지나치게 多感한 쇼팽의 정신적 속박은 결국 두사람의 파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섬생활 6년에 주옥같은 곡들이 수 많이 만들어졌다。상드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의 中期의 걸작들이 어떻게 됐을까。사람의 得失은 결코 두 사람만의 것은 아니었다。

후세 音樂愛好家에게도 큰 사건이었다 할 수있다。

日人뮤지컬「春香傳」을 보고

適役의 熱演…즐거움의 舞臺

日本的으로 깔끔한 춘향이

즐거움의 춘향전이었다. 음습한 구석이없게 펼쳐진다.

춘향이의 人間像부터가 깔끔한 탓일까.

그녀는 시종 이른바 매서운「가찌끼」(勝氣)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별 장면에서도 멀어지는 李도령의행렬을 보려고 하지않는다. 눈물을 보이는것이 싫다. 그리고 옥에갇히는 수난속에서 오히려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人間的 成長을 완성한다.「사랑있음에 행복일레라」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국人과 일본人의 가깝고도 먼 민족성과 현실을 생각한다.

우리의 춘향이는 도덕적규범속의 烈女이거나 사랑에눈뜬 人間의 自覺이 수난을 견디게 한다. 그러나 일본의춘향이는 그수난속에서도 사랑이 있음에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있다.

마음속에 우는 춘향이와 마음속에 웃는 춘향이…민족성과 아름다 어딘가 굴절로 정철된 현실에서 살아온 춘향이와 어쩌면「太平聖代」에 살고있는 춘향이의 差異가될는지 모른다. 그녀가 마음껏 사랑의 찬가를 부르기에는 가 날뛰건 옥중에 갇히건 즐거움의 춘향전이 될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대가 내게 안락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뮤지컬 전문이 아니고「극단」이기 때문인지 솔로(獨唱)와 유니존(齊唱)밖에 없는것이 아쉬웠고 그들사운드의 음악마저 歌謠調의 편범한 가락이었다.

조명의 핀·스포트 過用도 그렇거니와 다까라즈까(寶塚)調의 장치와 의상도 한마디로 촌스러웠다. 장치야말로「춘향전」의 본고장과 합작(디자인을 포함해서)合作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아쉬움을 잊게할만큼 즐거움을 준 원동력은 모든 출연자들의 熱演에 있었다. 關西지방의「메오또·만자이」(夫婦萬歲)에서 따온 듯한 느낌의 房子와 香丹은 우리를 웃기게 했고 春香 道令 使道 도 두 適役으로 손색이없었다. 특히 李도령은 당당했다.

두나라의 國歌를 연주해야는 儀式的인 大元에서 보다 스스럼없이 무대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삶이 풍요를 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바라고 싶다.

朴容九 <음악평론가>

體育훈장 추천勳格낮춰

勳章신청 남발防止위해

五輪 금메달리스트 靑龍章

南北대결등 優勝엔 猛虎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과 체육발전에 공이큰 체육인들에 수여되는 체육훈장에 대해 내년부터 추천勳格을 낮추기로 했다.

체육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남발되는 체육훈장신청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체육훈장중 최고의 영예인 靑龍章은 올림픽 金메달리스트만 추천키로 했다.

또 2급인 猛虎章은 올림픽 銀메달리스트에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南北대결등 중요한 경기에서 우승했을 경우에 한하기로 했으며 기타의 銀수상자는 巨象章을 추천키로 했다.

그리고 월드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金메달리스트도 중요한 경기에서 땄을 경우 巨象章에 해당되며 기타의 경우는 白馬章과 麒麟章·체육포장 순으로 추천키로 했다.

이밖에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金메달은 麒麟章을 원칙으로하고 중요경기일 경우 白馬章으로 승격추천키로 했으며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는 원칙적으로 체육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만 추천키로 했다.

한편 코치는 최고메달선수의 1단계, 단장및 감독은 2단계로 하향적용키로 했으며 참가국이 세계대회 16개국 아시아대회 10개국 미만일때도 역시 하향조정키로 했다.

체육훈장은 국내외서 거행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국위선양에 공이큰 선수나 지도자 그리고 체육발전에 기여한바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서 지난73년1월25일 정부의 상훈제도 개선에 따라 신설됐으며 靑龍章 猛虎章 巨象章 白馬章 麒麟章등5등급으로구분된다。

금년11월까지 靑龍章은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서 金메달을 차지한 레슬링의 梁正模와 세계궁도선수권대회 5관왕 金珍浩, 세계유도선수권대회 金메달리스트 朴鍾學등 9명이 수상했으며 모두 5백80여명이 각종 체육훈장을 받았다.

新體操 월드컵大會 신설

國際체조聯서 결정

첫대회는 82年 유고서…參加資格도 제한

【모스크바23日聯合】국제체조연맹(FIG)은 지난주 폐막된 제59차 총회에서 신체조 월드컵대회를 신설키로하고 제1회대회를 82년10월 유고의 자그레브에서 열기로했다. 이대회의 참가자격은 금년뮌헨에서 열린 신체조세계선수권대회의 개인종합18위까지, 단체전 8위팀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총회는 체조심판들의 지나친 주관에 의한 채점을 규제키위해 심판들에대한 赤色, 黃色카드의 사용등 징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제체조대회서는 蘇聯, 루마니아등 東歐체조강호들끼리 심판 채점에 대한 이견으로 분규를 빚어왔다.

蘇, 日누르고 先頭

세계體操 男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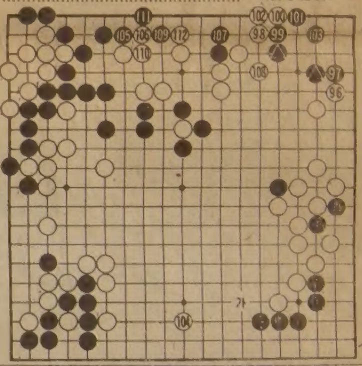
【모스크바23日聯合】蘇聯은 23일 이곳에서 개막된 81년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 규정종목경기서 293·60점을 마크, 강력한 라이벌인 日本을 2·10점차로 누르고 선두에 나섰다.

日本은 291·50점으로 2위, 東獨은 290·20점으로 3위, 中共은 290점으로 4위를 마크했으며 80년 포트워스에서 銅메달을 땄던 美國은 5위로 처져있다.

蘇聯의 신예 유리·코롤레프(19)는 개인종합 출전자격을 가리는 예비성적에서 58·95점으로 선두를 기록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7譜 96~112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河燦錫<1敗>
黑(7段)徐奉洙<1勝>

지난 11월11일에 있었던 國手戰도전제2국은 國手曺薰鉉8단이 徐7단에 執黑勝하여 1승1패。11월14일의 最高戰도전제2국은 도전자曺8단이 徐7단에 執白勝하여 연2승으로 상대를 막판에 몰아넣었다。아직도 兩타이틀戰 도합10국의 귀추는 예측할수 없지만 우선 曺8단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사실。徐7단의 분발을 바라는 팬들의 소리가 높다。

그것은 그렇고 이바둑은 白이 우변의 패를 조급하게 해소하는 바람에 그 댓가로 좌상귀白일단을 죽여서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판세가 이상해졌다。

좌상귀의 손실은 무려 33집이나 되는데 白은 20집정도밖에 소득이없다。단지 선수를 잡은만큼 어디선가 보충을 피해야되는 마당에서 河7단은 좀체로 그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파괴당한 上邊白家

생각같아서는 우상귀▲표돌의 日字굳힘가운데서 수를내고 싶다。하지만 결국『긁어부스럼될까 겁난다』면서 白96—98서부터 선수끝내기를 해치웠다。

그리고서도 河7단은 엉뚱한투로뒨가 되더니 이번에는 다음수를 곰곰히 생각하느라고 눈길이 좋은 하변에 집중되어 부산하게 움직였다。

지금이 말하자면 어려운고비。다음의 착점여하가 승부에 직결되는것이다。검토실에서는 白이「가」의곳을 써워 세력을 한껏 확장하는 작전이유력한 것으로 보고있었지만 河7단은 예상을 뒤엎고 하변복판을 白104로 갈라쳤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상변에 작동한 黑105에대해 무난하게 109자리를 지키지않은 탓에 黑107이하 111까지 白집이 파괴되어 대타격이었다。【一凡】

流星의 賦 <24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⑨

일본의 기록에 보면 이 사함에 관하여 소서행장(小西行長)이 다음과같이 수길에게 말했다고 되어있다。

『원래 고려인(조선인)은 겁이 많습니다。그런 까닭에 우리의 해적들을 겁내고 있읍니다。만일 이 해적들을 꽁꽁 묶어 보내면 그들은 안심하고 우리들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을 터줄뿐 아니라、우리에게 심복할 것입니다。그러니 해적 몇놈하고、해적의 앞잡이 노릇한 놈들과 고려인을 보내버리도록 하시는게 어떻습니까。쓸모 없는 몇놈과 고려인 전부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아뭏든 수길은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선조 23년、1590년 2월28일 일본의 사신은 해적의 괴수와 진도의 반민 사화동、그리고 납치되어간 조선인 1백60명을 데리고 왔다。그때 종의지(宗義智)는 인정전에서 헌부(獻俘)의 예(禮)를 행했는데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년에 왜구들이 귀국에 대해 한짓에 관해선 아는바 없사옵고、오늘 여기에 왜구를 인도하여 귀국의 변도를 겁탈케 한 귀국의 반민 사화동을 잡아와 바치오니 뜻대로 처리하옵소서』

종의지가 박송한 자들은 다음과 같다。

해적괴수
긴쥬우로오(緊時要羅)=金十郎
신사브로오(信三甫羅)=信三郎
마고지로오(望古時羅)=孫次郎
피랍치인
김대기(金大璣) 공대원(孔大元) 등 160명
반민(叛民)
사화동(沙火同)。

선조는 헌부(獻俘)를 받고 종의지의 노고에 치하한 다음 반민 사화동을 힐문했다。그내용은 문서엔 없으나 항담(巷談)으로 남아있다。그항담 가운데

『나는 천애의 고아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지 못한다。그런 까닭에 나는 도둑이었으면 도둑이었지 반민은 아니란』고 고함을 질렀다고도 하고

『내가 젊은 수모、내가 당한 굴욕의 갖가지는 입이 백개가있어도 다 말을 못한다。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주었다고 이렇게 책하느냐。빨리목을 베어라』고 외쳤다는 얘기가있다。

왕은 영을 내려 사화동을 성외로 데리고가서 목을베게했다。같이 박송해온 왜구의 괴수들도 이렇게했다。

선조는 종의지에게 내구마(內廐馬) 한필을 하사했다。내구마란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른말이다。

그리고 사신들 모두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로써 조정에선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 결정을 정식으로 내렸다。

그무렵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영의정 유전、좌의정 이산해、우의정 정철、이조판서 유성룡、예조판서 권극례、병조판서 권징。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은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대제학(大提學)으로서 국서를 초하려고 진언했다。익일의 조강(朝講)에 지사 변협(知事邊協)등의 진언도 있었다。사자(使者)를 파견하여 회신하고 동세에 그들 국내의 동정을 살펴보는 것도 나쁠것이 없다는 내용이었다。이렇게 조의(朝議)는 처음으로 결정되어 그 인선에 관해선 적재적소를 선택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送年女流短篇

내발에 동물 <2>

梁貴子 作
金光培 畵

우왕좌왕하는 거리의 불빛속에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내가 이런 수작을 걸기에는 어딘지 미흡한、옛된 구석이 있었다。귀염성스럽게 퍼머넌트한、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밑으로 나를 바라보는 깨끗한 눈이 보였다。약간 모가 져보이는 얼굴 생김새가 혹간 눈、코、입의 장점을 앗아가기도 할、그러나 묘하게도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여자였다。

난처하게도 그녀의 나이를 재빨리 식별해내지 못한 나는 이 수작의 전초전이 대단히 서툴렀음을 자인하면서 연 심사받는 응시생처럼 더듬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여기서 계시길래… 혹시… 무슨… 도울 일이…』

더듬거리는 나를 가엾다는 듯이 내려다 보던 여자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렇담、토큰 하나만 주세요』

결국 난 그녀를 돕는 일부터 시작한 셈이었다。순순히 나는 토큰 한개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았고 그녀는 그 값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사실은 내가 밑지는 거에요。이름값 치곤 토큰 하나는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녀는 푸른 신호등을 따라 길을 건너갔다。이번엔 내가 파도에 씻긴 조약돌처럼 고스란히 혼자남았다。

그것 뿐이었다。

기껏 밤의 매혹 속에서 부려보았던 나의 과장된 용기는<토큰>이라는 현실적 단어에 의해 순식간에 퇴색해버렸다。나는 망설이지 않고 돌아섰다。

순간<송희>라는 이름이 바람과 함께 심장 이쪽 편에 날아와 박혔다。

그러나 잠시후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되돌아 왔다。고백하건대 오늘 마지막월급을 받은 실업자의 가슴으로서는 이만큼의 해프닝도 사실은 미친 짓인 셈이었다。

그랬다。미친짓 후에 다가오는 허무함으로 나는 단연 그녀의 이름을 모른체 하기로 했다。우선 내 앞에 닥친 이 기나긴 동굴이 해가 가기 전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동굴 깊숙이로 나는 잠겨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녀를 잊었다。

가로수에 매달린 잎사귀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연탄불이 꺼진 내 자취방의 구들은 시큰둥한 남자 냄새로나 묻어날까 온통 냉기 투성이었다。

아직은 더견딜만한 주머니속의 지폐를 헤아리며 자고 먹고 또자는 생활。그러다가 문득 뛰쳐나가 담배를 사들고 돌아오며 마주치는 골목길에 쌓인 연탄재。느닷없이 나타나는 김장 쓰레기들。

나는 거의 미칠것같았다。곳곳에 널려있는 스산함을속에서 뛰쳐 달아나고싶었다。

그럴때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내 고물기타는 으레하나쯤의 줄이 끊어져 있거나 늘어져 있었지만 방주의 어설픔을 능히 뛰어넘을만큼의 실팍한 목소리는 살벌한 방안에서 오래오래 내 시린 가슴을 달래주었다。

『네 노래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

언젠가、어떤 여자아이가 말했었다。

그래、네 노래는 너무 슬퍼。단짝인 털보 녀석도 그랬다。

벽 저편으로 펼쳐진 세상을 외면한 채、나는 이 겨울을 노래와 함께 견디어 나가야 할 모양이었다。

배가 있었네
작은 배가 있었네
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

나의 노래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그때마다 나의 몸은 더욱 더 작아지는 것같았다。

서울 사대부고 망년회 파티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지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 프린스 호텔1층
회 비 : $40.00(커플), $25.00(싱글)
※COCKTAIL,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 백 이 삼—251—6578
김 강 욱—298—4232
송 광 호—533—2364

●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에덴침례교회
창립 2주년 기념예배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교민들의 삶의 현장에 넘쳐 나시기 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장7절)는 말씀대로 교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에덴침례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있읍니다. 두돐을 맞아 창립2주년 기념예배에 교민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배시간 : 1981년12월6일 오후2시.
장 소 : 1272 WESTON RD.
전 화 : 교회 242—4964
, 목사관 665—2866

예배안내 :
매주(일)오후1시30분(성경공부)
매주(일)오후 2시 (주일예배)
매주(금)오후6시30분(일반인을 위한 성경공부)

에덴침례교회 담임목사 정 태 진
(교우일동)드림

刑事犯 무죄宣告 늘고있다

올들어 8만4천건중 5百68件이나

분명한 직접證據 요구경향

死刑구형사건 無罪判決도

무죄선고건수가 최근들어 증가현상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요즘 갑자기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가 미진한채 피의자를 기소하기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새로운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전국의 1심법원이 과거보다는 좀더 「엄격한 증거(증명)」를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수사기관에 「인권수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하반기들어 연이어 터진 青松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高淑鍾 피고인(46)의 고문에 의한 자백설, 상경여대생 피살사건 용의자의 장기연행시비등에 따라 최근 검찰이 강력범 수사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싯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결자세는 과학수사의 확립과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없다。

재야법조계는 이러한 현상은 법관들이 소신을 갖고 외적인 작용에 의연함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풀이하고있어 흥미롭다。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법원 1심에서 선고된 8만4천33건 가운데 무죄선고건수는 5백68건(0·68%)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전체선고건수 8만6천9백5건에 무죄선고건수 4백84건(0·56%)과 비교할때 전체건수는 3천건 가까이 준 대신 무죄건수는 오히려 1백84건이나 늘어났다。

서울형사지법의 경우는 최근들어 무죄선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더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형사 지법에서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선고된 무죄건수는 94건으로 선고된 전체사건 1만2백87건의 0·9%, 이것은 지난해 1년동안 선고된 무죄 건수 79건(전체 1만3천6백24건의 0·58%)과 비교할때 기간이 짧음을 감안하면 거의 2배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지난 4일 濟州지법 형사부(재판장 玄炳度부장판사)가 무죄선고한 강도살인사건은 최근의 법원판결경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고철·폐품등 고물을 수집하며 영행상을하는 林炳顯씨(29·北濟州郡翰林邑翰林1里)는 지난4월25일 하오2시께 北濟州郡涯月邑 納邑里 민가에서 외따로 떨어진 김명생씨(48·여)의 움막집에서 김씨를 부엌에있던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싯가2천원상당의 목재 함지박과쟁반등 고물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구형까지 받았다。

林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계속범행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기소할때 林씨집에서 압수한 목재함지박과 쟁반등 증거품과 이 증거품이 피살된 김씨집에 있던것이라고 증언하는증인및 林씨가 사건직후 현장에서 1㎞떨어진 마을을 피묻은 회색바지를 입고 고물을 수집하며 지나가는것을 목격했다는 증인5명의 증언등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로서▲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압수된 증거물이 피해자가 소지하던것이라고 단정하기에부족하고▲설사 그물건이 피해자가 소지하던것이라고 가정해도 피고인이 이를 이사건범행때 취득한것이라고 볼만한 하등의증거가없으며▲피해자가 살해된지며칠후 발견돼 사망시간을 정확히 추정할수없는 상태에서 증인들이 피고인이 피묻은바지를입고 지나가는 것을봤다는 시간과 피해자사망일시가 근접한것으로 단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압수품이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한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일각에서는 판결에 승복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증거품과 증인이 있으면 과거엔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었다』고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70년대만 해도 검찰의 「증거법칙」이 어느정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와서는 법원이 좀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시하고있어 검찰은 앞으로 있다는 검찰분석도 나온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영·미계통의 증거법칙이 우리형사재판에서도 정착돼가는 증거다』고 최근판결경향의 요인을 분석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범의자의 족적등 유류품이 사건현장에서 발견돼도 범행때 떨어뜨린것을 증명할수 없으면 직접증거가 되지못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경향인것같다』면서 『범행순간을 본 목격자나 직접증거등을 확보해야지 과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유지가 더욱 어렵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변호사는 『과거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을 임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보강증거가 있다면 유죄판결을 내리는 일도 많았으나 이젠 좀더 엄격한 증거(직접증거)가 없으면 유죄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있다』고 말했다。

任官3~6개월안된 初任판사

令狀발부 못하게

大法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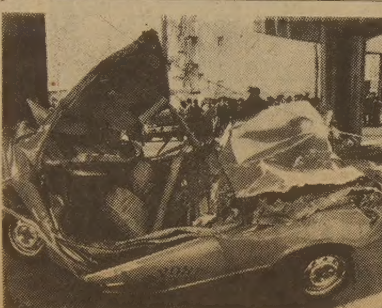
拘束期間 함부로延長 말도록

대법원은 24일 「임관된지 3~6개월이 지나지않은 초임법관은 영장발부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하고 검찰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않을 경우엔 구속기간연장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전국각지법및지원에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시에서 『구속및 압수·수색영장발부업무는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관여하여 강제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극히 중요한 사무로서 그 처리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처리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 각 법원의 사정에따라 임관후 3~6개월이 경과된 법관에한해서만 영장사무를 처리토록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군법무관출신과 검찰에서 전관한법관은 이제한에서제외토록했다。

대법원은 또 『일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2백5조2항규정에 따른 구속기간연장에 필요한자료가 첨부되지않은 구속기간 연장신청서를 그대로 접수, 처리하는 사례가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반드시 수사기록등 소명자료를 제출케하고 소명자료검토없이 구속기간연장을 결정하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두대의 시내버스와 3중충돌사고를 일으켜 마치 휴지처럼 구겨진 택시。

택시·버스3重충돌 승객등 2명重傷

24일 상오10시15분께 서울中區忠武路2街50의10 삼일고가차도 밑에서 乙支路쪽으로 가던 서울여객소속 서울5사4145호 시내버스(운전사 金京權·35)가 앞서가던 원광택시소속 서울1아1758호 포니택시(운전사 金得洙·27)를 뒤에서 들이받아 충격을 받은 택시가 다시 앞서가던 남산운수소속 서울5사8058호 시내버스의 왼쪽옆구리를 들이받는 3중충돌사고가 발생, 택시운전사 金씨와 택시뒷좌석에타고있던 승객 李유형씨(43·서울江南區盤浦洞…9동302호)등2명이중상을입었고 택시는휴지처럼구겨졌다。

鐵材떨어져 3명死亡

제일합섬 구미공장

【龜尾=聯】23일하오3시10분께 경북龜尾市工團洞 제일합섬(대표李洙彬·42)龜尾공장 별관신축공사장에서 3층건물의 지붕골조작업을 하기위해 설치해둔 6·5톤짜리 3각형철재 8개가 높이 5·5m아래로 떨어져 철주연결 작업을하던 용접공 姜東湖군(19·서울西大門區北阿峴3洞1의112)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철재조립공 李相鉉씨(22·경기도 富川市吾丁洞235)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순천향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遺族보상千萬원線 金井山 버스墜落

【釜山=聯】속보=부산山城교통 버스참사 사고대책본부는 24일낮 동래구청회의실에서 제2차대책회의를열고 이번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및부상자에대해 응분의 피해보상금을 빠른시일내에 지급키로했다。

5백50여명에 수출有功 포상

상공부는 오는 12월20일께로 예정된 수출의날에 수출유공업체및 수출업체 종업원(우수근로자및세일즈맨)등 5백50여명에게 시상할계획이다。

24일 상공부에서 밝혀진 수출의날 포상신청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출업체 2백88개기업, 수출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2백81명등 도합5백69명이 포상신청을 해왔는데대부분이 포상업체로 선정될것으로보인다。

포상대상업체의 시상내용을보면▲15억弗수출탑 해당업체가 3개사▲5억불탑 2개사▲1억불탑 16개업체를 비롯하여 신설된 1천만불수출탑 해당업체가 53개업체、5천만불 해당업체가 13개업체에 이른다。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심벌마크

첫大入學力考査 59만명 熱氣쏟아

盲·聾啞者등은 별도 考査場서

오른팔골절로 감독관이 代筆하기도

◇"내아들을…"校門밖 母情 고사장철책밖에서는또다른시험이 치러졌다。『우리지식이 시험을 잘 보게해주십시오』。학부모들은너나없이 합장한채 기도를드리고있었다。 【京西中고사장에서】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가 24일 상오9시부터 하오4시50분까지 전국28개지구 4백66개고사장의 1만4천8백10개고사실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예비고사가 학력고사로 바뀐뒤 처음실시된 이번고사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력고사성적을 대입전형에 70%까지 반영하고있어 수험생들은 문제하나하나에 온정성을 다했다。

이번고사의 총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9%가 늘어난 59만1천7백21명(남41만3천4백85명·여17만8천2백35명)이었다。

학력고사 관리담당인 중앙교육연수원(원장 金在圭)은 이날 맹인(17명)농아자(6명)들의 응시 편의를위해 서울 맹아학교와 농아학교에 별도의 고사장을, 그리고 뇌성마비 수험생(6명)을위해 서울의 4개고사장에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했다。

맹인 응시자에겐 점자문제지가 배부됐고 시험시간을하오6시40분 까지 연장토록했다。

이날 수험생들중에는 당황해 수험표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많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수험생들도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시험을 치를수있었다。

또 고사장밖에서는 쌀쌀한 날씨속에 학부모와 선후배들이 나와 추위에 떨며 애를태우는 모습도 보였다。

○…仁川제10지구고사장인 富平西여중 고사장에는 仁川소년교도소와 議政府교도소에서 각각 9명씩 모두 18명의 재소자들이 나와 실력을 겨뤘다。

議政府교도소에서 온 李모군(19)은 『최선을 다해 역경속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부산과 경남도내수험생중 신체장애로 단독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4명。

뇌성마비장애자인 金유창군(19·宜寧종합고)과 고철수군(19·山淸송계고)은 馬山성지여중교장실과 晋州동명고 교무실에서 각각 별도의 시험을 치렀다。

또 馬山여고 황미희양(18)은 창신공고 의무실에서, 金山성모여고 李미자양(18)은 관절염으로 휠체어를탄채 대신여중 양호실에서 응시。

濟州에서의 이같은 수험생은 3명。 맹장염수술을 받고 불편한몸으로 학력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은 6명。

○…全州완산고 李주영、春川기계공고 林鍾永(18)、陰城無極고 李鍾鎬、慶城종합고 申載千、燕岐남고 尹順禮、光州검정고시 출신의 손섭모군등。

이들은 모두 담해/고사장의 양호실등에서 눕거나 편안한자세로 실력을 발휘했다。

○…전북 장수고 金국진군(18)은 오른팔골절상을 입어 全州해성고 학생부실에서 감독관이 金군의 대필을 해주었다。

○…全州제8고사장인 완산고에서는 39세의 만학도 權弘씨가 단연이채。

최고령자를 기록한 權씨는 칠보단위농협에 근무하고있는데 59년 중학을 졸업한뒤 가정형편으로 진학을 못했으나 뒤늦게 全州방송통신고에 들어가 대학진학의꿈을 키웠다고。 같은 고사실의 李和平씨는 38세로 4남매의 가장。

李씨는 완주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李씨는 향학의 꿈을 버리지못해 全州고부설 방통고를 졸업하고 응시했다는것。

埋立地 불하미끼 18억詐取

民俗藝術院이사장·常務등 3명拘束

高位層친척·비서 사칭

치안본부특수수사대는 24일 고위층친척과 비서관을사칭, 매립지를 싼값에 불하해준다고속여 18억원을 사취한 한국민속예술연구원이사장 崔炳石씨(54·서울江東區明逸洞312의28)와 상무이사 裵植祿씨(51·서울恩平區津寬外洞404의36)、安國화재보험 淸海社대리점주인 李思吉씨(50·서울麻浦區新水洞26의19)등 3명을 사기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3월 서울中區武橋洞 티파니경양식집에서 金씨는 고위층의 아저씨、李씨는 청와대비서관이라고 속이고 和信그룹재대표 李中雙씨(45·부산釜山鎭區釜田洞319의68)에게 부산西區林洞에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매립지 21만평을 평당 싯가10만원짜리를 3~5만원에 싸게불하…

1 세계第一 계산기능인 한국 李春德양

東京세계大會 6종목 席卷

청등장 電算器보다 빨라

百億단위10줄 31문제 5分만에暗算

【東京23日=聯】한국의 주산암산왕 李春德양(21·成大 회계학과3년)이 23일 東京고오라쿠엔(後樂園)中央大學이공학부에서 거행된 제1회 계산기능세계제1결정전에서 대학 일반부문의 승산·제산·가감산·승암산·제암산·가감암산등 6개종목에 걸쳐 우승을 휩쓸고 각종목 세계계산기능 제1의영예를 차지, 한국인 두뇌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이날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계산기의 사용을 허용, 선수들의 편의에따라 계산·주산·암산등 3가지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됐는데 李양은 암산만으로 전자계산기를 누르고 6개종목을 휩쓸어 인간의 계산능력이 현대의 계산기를 능가함을 공식 확인했다。

고등부에 참가한 南美瓊양(16·서울여상2년)은 승산과 가감산에서 세계제1위, 제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한국선수7명, 일본선수 58명등 모두65명이 참가, 계산능력을 겨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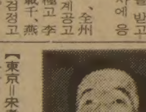
이날 대회에서 6개종목을 휩쓴 李양은 1백억단위숫자 10줄로된 가감산 60문제중 31문제를 단 5분만에 풀어내는등 각부문에서 2위와 커다란 실력차이를 보이며 우승했다。

李春德양이 대회 6개종목에걸쳐 세계 제1위의 영예를 차지하는순간 대회장에는 우뢰와같은 박수와 카메라맨의 플래시가 터졌고 李양등 한국선수들에게몰려 사인및 인터뷰공세가 벌어졌다。

李양은 『각부문 세계 제1인자가되어 말할수없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록경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趙演鉉씨 日서別世 28일 現代文學社葬



◇故趙演鉉이사장

【東京=宋李彬특파원】문학평론가이며 한국문인협회이사장인 趙演鉉씨가 24일상오7시10분 日本東京新宿區에 소재한 가이엔(外苑)호텔에서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향년61세。趙씨는 지난16일부인 崔祥南여사와 출국、부부동반으로 臺灣、홍콩등을거쳐 日本에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趙씨는 지난해 맞이했던 回甲을 기념해서 함께여행을 떠나 27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趙씨는 慶南咸安에서 출생、培材中學을 나와 東國大學을 중퇴했다。培材5학년때 잡지「朝光」에 투고한 詩가 뽑혀 문단에 나온뒤 30대에 月刊「現代文學」을 창간하고 문학평론가로서 활동해왔다。

저서로『韓國現代文學史』『文學과 社會』『文學과 生活』등의 평론집과『순수전의 思想』『남기고싶은 이야기들』등의 에세이집이 있다。유족으로 부인과 1남2녀가 있으며、유해는 25일오3시30분 KAL703便으로 운구된다。발인은 28일상오9시 城北區貞陵洞711의108 자택(☎9751…)에서、영결식은 상오10시 東崇洞 문예진흥원에서 現代文學社葬으로 엄수된다。빈소는 文協사무실(鍾路區仁寺洞110)에도 차려져 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전통의 중국음식"
－CATHAY RESTAURANT－
● 모든 종류의 해산물 취급
● 유명한 중국인류 요리사
● 와보시면 압니다.
國泰酒家
10：30AM～11：00PM(화요일은 문닫음)
475－485 DUNDAS ST. W. 2층
전화：368－2671～2
國華酒樓
● 술취급 합니다.
10：00AM－11：00PM(수요일 문닫음)
457－459 DUNDAS ST. W.
전화：363－2305～6
(스파다이나×던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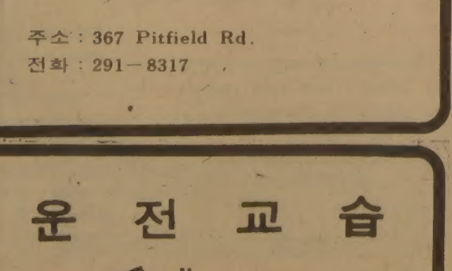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367 Pitfield Rd.
전화：291－8317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368－4215. 368－0114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Bayview Keele Bathurst Bloor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中型 시내버스 惨事 승객33명의 목숨을 앗은 부산 5자3715호 중형 시내버스。10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차체가 대파된채 솔밭에 처박혀 있다. 【釜山=金龍逸기자 찍음】

超滿員버스 墜落…33명死亡

釜山 東萊 金井山 일요 나들이 歸路 브레이크故障、10m벼랑서

37명 重輕傷

【釜山=方旼俊・金龍逸기자】 휴일을 맞아 부산金井山에 나들이갔다오던 행락객을 정원보다 2배이상태운중형시내버스가 브레이크고장을일으켜 10m아래벼랑으로 굴러승객과운전사등 33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22일하오 발생했다. ★관련기사10・11面

이날 하오4시55분께 부산東萊區長箭2洞山城路 중턱 커브길에서 金城洞을 출발, 長箭洞으로 가던 동래산성교통(대표 姜清子・36)소속 부산5자3715호 203번 중형시내버스(운전사 孫春一・42)가 브레이크파열로 경사20도의 비탈길을 달려내려오다 10m아래 벼랑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68명과 운전사・안내양등 70명중 운전사 孫씨와 승객 황영운씨(31・東陽전설토목과장・東萊區蓮山6洞1849)등 33명이 숨지고 강해숙씨(37・여・釜山鎭區田浦3洞)등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金城洞에서 해발 4백m의 山城고개를 넘어 커브와 경사가 심한 폭6m의 비탈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사고지점 2백m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브레이크가 듣지않아 그대로 내려오다 90도의 커브길벼랑으로 돌진,10m아래솔밭으로 처박혔다.

부상자들은 부산시내 大同병원등 9개병원에 분산입원중이며 사망자시체는 녹산현대 東萊大同 병원등 4개병원에 안치됐다.

사고원인 수사에나선 부산東萊경찰서는 23일 사고버스의 제동장치를 정밀조사한결과 라이닝이 마모됐으며 휠실린더컵이 깨어져있는 사실을 확인, 이회사 2급정비사 崔大林씨(26)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사고버스회사대표 姜씨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대책수습본부(본부장 崔泰鎬 부산 東萊구청장)는 23일상오 東萊구청 회의실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에대한 보상대책 수습을 협의했다.

가해업체측은 보험에 들고있지않아 사망자에 대한 보상비가 최고 2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 회사 실권자이며 회사대표姜씨의 남편인 崔錫鐵씨의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전재산을 내놓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이회사의 재산조사를 해, 보상금등을 결정키로 했다.

中共"서울올림픽 參加"

高位관리 "修交없어도 어디든 가겠다"

【北京21日AP=聯合】 중공은한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지않고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는 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할것이라고 중공의 한고위관리가 21일 말했다.

이관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올림픽운동의 일원으로서 올림픽이 어디에서 개최되든 참가할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런데 중공은 북괴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背景·연줄 좋아야 出世" 71%

梨大 李永鎬교수조사 한국인意識 아직 脫도덕的

"故鄉 중요" 48% "돈있어야" 51%

誠實보다 手段 높이評價 62%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면 좋은배경과 좋은 고향이 있어야 하고 돈과권력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있다. 다분히 「백」·地緣·권력·金錢등을 숭배하는 脫도덕적인 풍조에 젖어있는 것이다. 梨大 李永鎬교수는 지난9월 전국에서 표본산출한 1천2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란 윤리질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24일부터 全經聯회관에서 열리는 현대사회연구소(소장 高永復) 창설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줄이나 배경이 있어야 출세한다」는 설문에 71%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백」도 地緣이 중요시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48・3%가 「출세하는 데는 고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 「그렇지 않다」고 한 35・9%를 앞섰다.

이와함께 높은 배금사상을 보였다. 51・9%의 사람이 「우리사회는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이에비해 이를 부인한 사람은 43%로 반에도 못미쳤다. 이를 뒷받침하듯 60・5%의 응답자가 「세상일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고 대답, 「그렇지 않다」는 반응(33・4%)보다 거의 배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이같은반응은 「우리사회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잘산다」는 관념으로 연결됐다. 31・5%가 이를 「그렇지않다」고 부인했으나 배에가까운 56・4%가 이를 인정, 지배계층에 대해 높은불신감을 보였다. 준법정신도 많이흔들렸다.

51・4%가 「우리사회에서는 법대로만 하다가는손해본다」는데 이의를 제기한반면 「그렇다」는 반응도 31・5%로 상당히 높았다. 오히려 성실한 사람보다는 수단을 높이 평가한 사람이 거의3분의2(62・3%)로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비해 「우리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보다수단이 좋은 사람이 출세한다」는데 반대의 뜻을보인 대답은 31・2%로 3분의1에 미치지못했다.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감은 준법정신보다는 높았으나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억울할때 법에 호소하면 해결된다」는 반응은 42・8%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사람이 43・2%로 더 많았다.

이처럼 한국사람들이 전체적으로 脫도덕적 풍조에 젖어있음에 따라 「성실한 삶을 지향하는 規範」도 비도덕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거짓말도 할줄 알아야한다」(66・7%)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26・6%) 「관광서에 가서 공무원에게 일을 잘봐달라고 담배값정도 주는것은 괜찮다」(26・5%) 「공무원이 아는 사람을 좀더 잘봐주어도 무방하다」(22・3%)는 설문에 대한 반응이 높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課外수업 서울의 경우 "다소 있다" 50%

淨化 긍정적47%…非違색출"잘한다"85%

우리국민들은 사회정화운동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것은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부가 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지방의 1천9백93가구를 대상으로한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의식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47・5%가 「반드시 계속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위공직자숙청에 대해서는 85・4%가 「아주 잘하거나잘한 편이다」고 동감을 표시했으나 과외수업에 대해서는 서울의경우 「다소 있다」「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반응이 50%로 「거의없다」의 34・2%를 압도, 비밀과외수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사회정화에 앞장 서야할 사람은 정치인(24・3%)과 고급공무원(19・3%)이 1、2위로 지적됐다.

서울올림픽對備 5년計劃

公園2백41개소 造成

나무 3千萬그루 植樹

서울시는 23일 수도권녹화5개년 계획을 확정, 82~86년까지 모두 3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기간동안 60억원을 들여 2백41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고 1백45개가로에 새로 가로수를 심는등 모두 9백2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1가구4주씩 심는 대대적인 시민식수운동을 전개, 각가정,학교,공장등에 모두 2천1백20만그루(3백63억원상당)의 나무를 심게한다는것.

서울시는 88년 올림픽개최 확정에 따라 서울을 울창한 녹음이 우거진 국제적인 도시로 면모를 일신시키기위해 이계획을 마련했는데 87년, 88년 2년동안은 보수、벽천(壁泉)、옥상조경、벽면조경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고 각가정별로는 꽃장미、철쭉등을 심어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로 했다.

◇막바지 정기국회에서 膠着상태에 빠진 稅法과 예산 삭감문제등 당면한 國政현안을 논의하기위해 政府와 各黨수뇌들이 會同했다. 左로부터 申秉鉉부총리, 金鍾哲국민당총재, 南悳祐국무총리, 柳致松民韓黨총재, 李載灐民正黨대표.

豫算 대폭삭감 難色

"敎育財政,目的稅로 해야"

南총리、3黨代表모임서 밝혀

南悳祐국무총리와 李載灐民正黨대표, 柳致松民韓黨총재, 金鍾哲국민당총재는 23일하오6시 서울시내 플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운영문제등 國政전반에 관해 협의했다.

南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각정당간에 많은 異見을 보이고 있는 새해예산안의 삭감규모와 稅法개정등에 관한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문제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자리에서 民韓·국민당등 野黨측은 黨論으로 결정된 예산안삭감규모를 제시,국민의 稅負擔力과 不況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교육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육세의 目的稅신설은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교육財源은 다른방법으로 조달할것을 주장했다.

[illegible]

人的공제 引上案과 勤所稅原案중 擇一

民正제의 民韓등선 反對

국회財務委의 稅法심사小委는 23일 소득세의 人的공제액인상문제를 중점심의했다.

小委활동2차시한 연장 첫날인 이날 民正黨측은 종래의 「人的공제액인상不可」원칙에서 약간 후퇴, 人的공제액을 인상하는 案이나 民韓黨측이 주장하는 근로소득공제와 稅額控除額을 정부原案대로 통과하는 안중 택一할것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民韓黨등 野黨측은 人的공제액의 인상은물론 근로소득세의 稅額공제액등 소득세전반에 걸쳐 인상할것을 주장했다.

국회 7개常委 一般法案·請願심사

국회는 23일하오 外務,內務,經科,文公,農水產,保社,建設등 7개 常委를열고 정부와 議員들이제출한 일반法案과 청원등을 심사했다.

내무위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중 개정법률안,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률안등 2개 법률안에대한 6인審査小委를구성했다.

小委멤버는 朴潤鍾(위원장)、金鍾載、李珍雨의원(이상民正)、柳濱海、徐淸源의원(이상民韓)、趙尹幸의원(국민)등이다.

또한 文公委에서 李奎浩문교장관은 『교과서출판은 ▲수용확자 ▲공급기간준수 ▲실업계등 교과서의 발행부수 제한등의 특수성때문에 공개입찰에 맡기지않고 隨意계약을 맺어왔다』면서 『83년부터는 교과서를 다시 제작·발행토록했기 때문에 현재 隨意계약을 맺고있는 6개회사외에도 능력있는 회사는 제작에 참여토록 개방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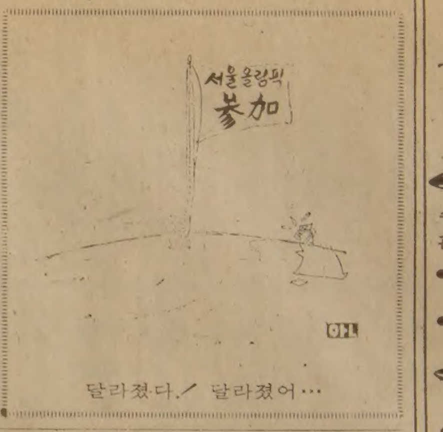
豫算 部別심사착수

국회는 23일하오 豫決委전체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部別심사에 착수했다.

豫決委는 25일까지 部別심사를 한뒤 26일부터 3일간 예산안 調整小委에서 計數조정작업을 벌인뒤 28일하오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는 또 通貨관리와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아울러 특히 民韓·국민당등 野黨측은 地方自治制를 재정자립도가높은 市道부터 우선실시하라고 촉구했다.

社會漫評



달라졌다./ 달라졌어…

地平線

집값이 미친듯이 춤추던게 엊그제같은 70년대의 일이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격으로 70년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기억제를 한다고 언젠가 놓던 때가 옛날이었다는 듯이 이제 「주택건기부족책」얘기가 나오는판이고보면 「자라보고 놀란가슴」을 또한번 쓰다듬는게 월급장이나 서민들의 입장이 아닌가싶다.▼부동산경기가 밑바닥을 기고있는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의 돈줄을 쥐었다 폈다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덕분에 미국의 목재업계는 「35년만에 최악의 불경기」에 빠져있다. 지난 9월현재 서쪽 12개주의 제재업계에서는 10만2천명이 실직자가 되거나, 또는 제대로 일을하지못하는 반실업상태에 있다. 35년만에 가장 주문격감이 될 전망이다.▼미국은 작년에 1백30만채의 집을지었고 올해에 1백20만채를 짓게 됐다. 건축업협회는 올해의 착공실적이 한창 경기가좋았던 2~3년전의 절반수준인 1백만채밖에 안될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바닥경기가 어떻게될것이냐에 대해서는 낙관론에서 비관론에 이르기까지 세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첫째는 미국의 주택경기가 내년에 되살아나 올해보다 15%쯤오를것이라는 의견이다. 계약금액으로 쳐서 33%가 늘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그것은 금리가 떨어지고 집을 사겠다는 독신주의자들이 늘것이라는 예측에 근거를 두고있다. 예를들어 뉴욕같은 대도시가몰려있는 동북쪽에서는 독신주의자들의 주택수요가 46%나 폭발적으로 늘것이라는 계산이다.▼얼마전까지만해도 80년대는 전후의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가 집을장만하는 주택붐의 시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있었다. 그러나 업계동향은 아직까지 신통치않은 것으로 큰 기대를 걸수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게다가 독신주의자들도 불경기바람에 집에 투자할 돈이 줄었다고 신중론자들은 보고있다. 극단적인 비관론은 내년엔 경기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주택건축업자협회의 서비크라스트라는 전문가는 내년엔 주택경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목재업계에서는 내년말, 어쩌면 83년초까지 찬바람이불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도 무턱대고 「마이홈 비율」을 올려야 된다고 강박감에 쫓길게 아니라, 복부인의 치맛바람이 일지않도록 경계해야된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좋지만, 투기바람은 서민들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추

TELEF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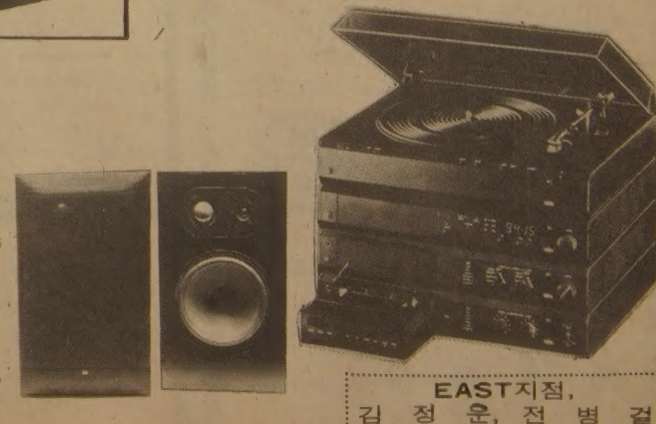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 WESTON / HWY401 / HWY400
745－5555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제네바軍縮協商 성공하면

美·蘇 頂上會談도 可能

"레이건의 새 軍縮提議에 蘇태도、강력反對서 후퇴"

【워싱턴22日UPI聯合=聯合】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제네바 미소 군축협상이 「성공의 징조」를 보일 경우 미소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미고위관리들이 22일 말했다。

에드윈·미즈백악관 대통령고문은 이날 CBS·TV와의 「국민과의 대면」 프로에 출연、이같이 밝히고 레이건 대통령의 새군축제의에 언급、이에 대한 소련의 태도가 지난 며칠간 당초의 강력한 반대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졌다면서 소련이 이제의를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다고 밝혔다。

미즈고문은 미소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네바 미소 군축협상과 내년 1월로 계획되고 있는 일련의 미소외상회담을 예의주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결과를 이룩할 가능성이 많은것으로 보일때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 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와의 정상회담개최에 관심을 보일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도 NBC·TV의 「언론과의 대화」 프로에서 「내년중 미소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히고 이는 오는30일의 제네바군축협상결과에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은 ABC·TV에 출연、레이건 대통령의 군축제의에 대한 소련의 거부태도가 「최종적인 것」으로는 보지않는다면서 「소련지도층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와 군비경쟁의 부담을 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담중인 西獨·蘇양국頂上 蘇聯 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23일 西獨의 영빈관에도착、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과 환담하면서 주스를마시고있다。【본23日UPI電送=聯合】

◇본市民들의 反蘇데모 약2만명의 본시민들이 브레즈네프 蘇공산당서기장의 도착직전 본시장에서 反蘇데모를 벌이고 있다。【본22日AP電送=聯合】

브、레이건에 單獨會談제의
駐美 蘇대사관、6개월전書翰 공개

【워싱턴21日AP UPI=聯合】워싱턴주재 소련대사관은 20일 브레즈네프 蘇최고회의간부회의장이 레이건美대통령에게 「단독회담」개최를 제의한 6개월전 서한을 공개했으며 레이건 대통령도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회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한 백악관관리가 밝혔다。

소련대사관은 이날 소련은 미국과의 대결을 원치않으며 『특히 우리(미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주요 문제점을 위해 상호 수락할수 있는 타결책을 모색한것과 성실하고 건설적인 협상들』을 제안한다고 밝힌 지난 5월25일자 브레즈네프의 서한을 공개했다。

소련대사관은 이서한을 공개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18일 외교정책연설에서 그가 금년4월 브레즈네프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東西經濟협력 論議
西獨·蘇頂上회담 유럽核감축문제등

【본22日AP·聯合=聯合】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이 22일 하오(한국시간23일 새벽3시) 서독의 본에 도착、그로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이래 처음인 서방공식방문일정에 들어갔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이날 안드레이·그로미코 외상이 포함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의 아에로플로트 항공기편으로 공항에 도착、헬무트·슈미트 수상、한스·디트리히·겐셔 외상등을 비롯한 서독정부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서독의 장대를 사열하는 대로 커튼이 드리워진 리무진편으로 본 북방52km에 소재한 김니히성(영빈관)으로 직행했다。

그는 25일까지 계속될 4일간의 공식방문동안 슈미트 수상과 다섯차례 회담、동서양진영간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있는 유럽배치핵미사일 감축、동서경제협력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美·西歐이간劃策
中共、브訪獨비난

【北京22日聯合=聯合】중공은 22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서독방문이 미국과서구국가들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데 목적을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영신화사통신은 이날 본발 기사에서 브레즈네프의 서독방문이 유럽배치 중거리핵미사일감축문제를 토의한 제네바 미소군축협상 개막직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같이 비난했다。

新型무기 아니면 對臺灣 판매無關
中共、美입장諒解

【北京23日UPI=聯合】중공은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가 현재 대만보유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한것이 아닐 경우 이를 문제삼지않을것임을 시사했다고 월터·먼데일 전미부통령이 22일 말했다。

중공을 방문중인 먼데일 전 부통령은 이날 일본으로 떠나기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공의 실권자 鄧小平과의 회담에서 대만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밝히고 미국은 대만의 현 군사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선된 국방장비의 對대만판매는 계속해도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대만이 보유하고있는 F5전투기보다 기능면으로 우수한 전투기를 판매할 경우는 미·중공관계를 위태롭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日、강력한 새抗癌劑개발
인터페론보다 50倍 효력

【東京22日AFP=聯合】인터페론보다 50배나 효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항암제가 일본 도오꾜 소재 모찌다(持田)제약회사와 하야시바라(林原)생화학연구소에 의해 공동개발되었다고 22일 발표됐다。

모찌다 제약회사와 하야시바라생화학연구소는 암의 「능동치약」인 이 새로운 항암제가 인터페론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중에서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림포카인인 한 물질로부터 추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그들이 카시노·브레이킹·팩터(CBF·암파괴인자)로 명명한 이 항암제의 대량생산을 시도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다。

앨런、萬달러收賄說
낸시會見代價…法務省、調査착수

【워싱턴22日UPI聯合=聯合】미법무성은 리처드·앨런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이 日本 여성잡지 『主婦의 벗』사로부터 레이건미대통령부인 낸시여사와의 회견주선사례비조로 1천달러가 아닌 1만달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혐의에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미행정부관리들이 21일밝혔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법무성관리들은 앨런보좌관이 지난1월21일 『주부의 벗』사의 낸시여사회견을 주선하면서 사례금조로 현금1천달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이돈이 들어있던봉투겉면과 일종의 영수증격인 한서류에 모두 1만달러로적혀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수사는 새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법무성관리들은 앨런보좌관이 1천달러가 아닌 1만달러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표하면서도 돈이든 봉투와 영수증에 이미 알려진바와 같은 1천달러가 아닌 1만달러로 적혀있어 이에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미연방수사국(FBI)요원들이 이문제와 관련한 추가신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앨런사건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문제는 윌리엄·프렌치·스미드 법무장관이 최종결정을 내릴것이라고 덧붙였다。

1萬달러說은 否認
日紙、앨런스캔들에

【東京22日聯合=聯合】일본의 여성잡지 『主婦의벗』사의 간부는 22일 리처드·앨런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이 앞서 보도된것처럼 1천달러를 받은게 아니라 1만달러를 받았을는지 모른다는 미 뉴욕·타임즈지의 보도를 부인했다。

앨런、日企業과 有關

【東京21日共同=聯合】한 일본출판업자로부터 1천달러의 사례금을 받았다하여 집중공세를 받고있는 리처드·앨런 미 대통령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이 닛산자동차·도오꾜전기등 일본유수의 기업들을위해 사업담당고문으로 일하는등 과거 일본기업체에도 깊숙이 관여했던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학생·政府會談결렬
波48개大 盟休계속

【바르샤바22日UPI=聯合】폴란드사상 최장 최악의 맹휴를 벌이고있는 라돔시 학생들과 정부관리들간의 회담은 22일 결렬되고 말았다고 라돔공과대학의 한학생대변인이 밝혔다。

안개서린天池 樹海사이로 飛龍瀑布도
최근의 白頭山 모습

◇白頭天池 韓民族의 聖地 백두산天池。頂上에서 남쪽을 내려다 보고 찍은 것이다。안개서린 湖水가 아름답다。

◇頂上부근 頂上부근의 山竹및 草生地。高山의 생태를 한눈에 알수있다。펑퍼짐하고 우람한 능선이 압도해온다。

◇飛龍폭포 天池에서 發源한 松花江은 上流에서 수많은 絕景을 만들어낸다。飛龍폭포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勝地。松花江은 西北으로 滿洲를 가로질러 옛高句麗의 번전을 이룬、韓民族의 영원한 고향이기도하다。

◇中共쪽에서 頂上으로통하는 백두산뒷길。이사진을 찍은 푸어박사는 중공쪽에서 등정했다。길양편에 40~50년생 전나무숲이 무성하다。

79년 英生態學者 푸어博士 촬영 처음公開

겨레의 聖山 백두산의 이모저모를 담은 사진10매가 23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의해 공개됐다。안개가 서린 天池의 전경과 자작나무및 전나무숲 松花江의 비룡폭포등 해방후 가까이 접할수 없었던 백두산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있는 이사진은 지난79년 영국옥스포드大교수이자 생태학자인 던칸·푸어박사가 찍은 것이다。푸어박사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일환으로 생물권 보존지역 설정을 위해 중공을 거쳐 장백산맥을 따라 백두산에 등정했었다。지난 8월 한국에 왔던 푸어박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朴奉植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79년에 백두산 天池등을 촬영한 사실을 공개、朴총장의 요청으로 이번에 사진을 보내온 것이다。

메아리
入試有感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시험으로 사람을 뽑아 쓰던 역사는 오랫고 특히 과거제도의 비롯은 신라 원성왕4년인 서기788년의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로 보고 있다。

이 과거제도는 고려시대로 이어졌고 조선시대에도 실시되어 3년마다 한번씩 쥐、토끼、말、닭해에 원칙적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과거는 문과와 무과및 잡과로 크게 나누어 지며 이가운데 잡과는 또 다시 역과、의과、음양과、율과로 구분이 지어 졌으나 조선시대는 문과를 우대해서、과거라 하면 문과를 가리킨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과거에는 사마시(司馬試) 또는 생진시(生進試)와 문과(文科)가 있는바 사마시와 생진시는 흔히 소과(小科)라 하고 문과는 대과(大科)라 일컫는다。생진시는 다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2단계를 문과는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급제하게 되는 것이다。

생진시의 초시는 선비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국가시험으로서 식년을 한해 앞둔해의 8월에 한성부와 8도에서 지역별로 시행되는데 전국에서 문·무양과 각각 7백명(후에 5백40명) 총1천4백명을 뽑고 그 다음단계인 생원、진사 각과에서는 초시합격자 가운데서 생원、진사의 복시 백명씩을 뽑는다。

제3단계인 문과초시는 생원과 진사만 응시할 수 있고 이과정에서 3백40명(뒤에 2백23명)을 뽑고 이들이 문과 복시에 응시하여 최종적으로 33인만 남게된다。

그리고는 왕이 친림한 가운데 치르게되는 전시가 남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합격은 하되 갑과(甲科)에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으로 분류를 한다。

특히 갑과에서 수석을 차지하면 장원(壯元)이라하여 정6품의 품계를 받고 그다음이 방안(榜眼) 탐화(探花)의 순으로서 각각 정7품을 제수받으며 나머지는 을과가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받는다。

오늘24일은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전국 24개지역에서 59만1천7백명이 응시하게된다。이를 지난날의 제도에 굳이 비기자면 초시쯤은 되는것인지? 응시생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랄뿐이다。

사우디案 異見심각
아랍外相회담 개막

【페즈(모로코)23日UPI=聯合】제12차 아랍연맹정상회담의 의제를 준비하기위한 아랍외상회담이 22일 모로코의 페즈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를 포함한 21개아랍연맹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으나 사우디중동평화안의 의제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강경국과 온건국간의 이견으로 의제절충에 실패한채 첫날 회의를 끝냈다。

회의소식통들은 첫날 개막회의에서 리비아의 압델라티·오베이디외상이 사우디중동평화안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등 강경국들이 리비아에 동조、사우디평화안을 공격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팔레스타인대표로 참석한 파루크·카두미 PLO정치국장은 사우디 평화안의 제7항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승인하고 있다는 이유를들어 사우디평화안을 아랍외상회담과 정상회담의제에서 제외시킬것을 주장했다고 이소식통들이 전했다。

中東평화 維持軍에 英·佛·伊·和서 派兵
이집트政府에 通告

【카이로·예루살렘22日AP聯合=聯合】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등 4개歐共市(EEC)회원국들은 22일 내년4월 캠프데이비드협정에따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완전히 반환할 시나이반도에 배치될 2천5백명규모의 평화유지군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음을 이집트정부에 통고해왔다고 이집트외무성관리들이 말했다。

이들은 카이로주재 4개국대사들이 그들정부의 메시지를 부트로스·갈리 이집트외무담당국무상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 4개국이 23일 그들의 시나이평화군 참여에 관한 공식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義妓 論介墓 새롭게丹粧
3백88年만에 聖域化경정돼

【咸陽=聯合】壬辰倭亂때 적장 게다니(毛谷六助)의 목을 끌어안고 晉州南江에 빠져 숨진 義妓 論介의 묘가 숱한 논란을 거쳐 3백88년만에 인정을 받아 새롭게 단장된다。경남咸陽郡은 23일 咸陽郡西上面金塘里 山71 속칭 탑쟁이골 중턱에 있는 論介의 묘와 論介를 측실로 삼았던 당시 慶尙右道병마절도사 崔慶會장군의 묘를 내년까지 성역화하기로하고 기초조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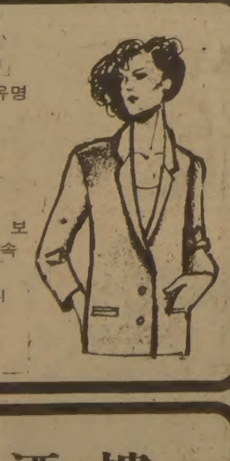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883－9407
●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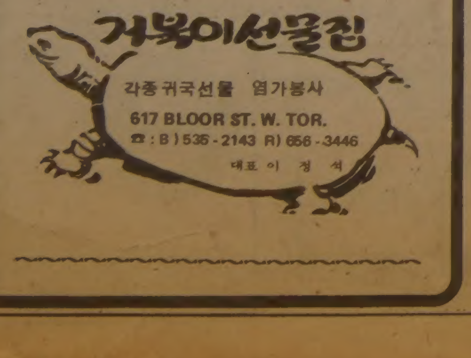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533－7966 김 명 철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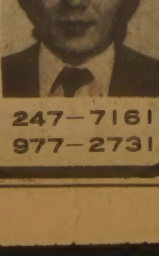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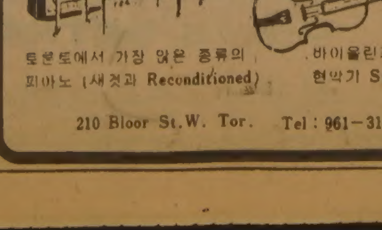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죽음의 行樂길…피에물든「단풍溪谷」

—— 釜山 金井山버스墜落 慘劇현장

브레이크破裂 30m 虛空 날아

튕겨나온 行樂客 "살려달라" 아우성

【釜山=方畋俊기자】사고는 날수밖에 없었다。2배가넘는 정원초과에 정비불량、90도에 가까운 급커브가 15군데나되는 비좁은 길에 안전시설이라고는 전혀없는 험로와 단속부재。이같은 요인들이 겹쳐 휴일행락길이 삽시간에 지옥으로 변한것이다。사고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참사에 넋을잃었고、시민들은 위험지역인데도 사고예방을 소홀히한 당국과 버스회사에 분노를 금치못했다。

문짝·의자·死體뒤엉킨 "地獄"
넋잃은 유족들 땅치며 통곡

[사고순간] 버스가 추락하는것을 목격한 동창사소속 부산1바5571호 택시운전사 金明均씨(27)는『長箭洞에서 승객을태우고 올라가다 커브길60m지점에 이르렀을때 산모퉁이에서 기어나온버스가 벼랑으로 돌진、비행기처럼 허공을30m가량 날아서 숲속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사고버스는 정원32명의 배가넘는 68명을태우고 내려오던 중이었는데 추락한버스는 앞부분을 벼랑에처박은채 반듯이 서있었지만 승객들이 술에취한데다 추락의 충격으로 앞으로밀려 희생자가많았다。

운전석뒤 3번째 좌석에탔다 경상을 입은 金桂玉씨(32·부산南區龍湖洞143)는『버스가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갑짜기차체가 붕뜨는것을 느끼면서 곧 정신을 잃었다』고 사고순간을 말했다。

[현장] 추락현장은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었다。승객들은 튕겨나간 의자와 문짝등에뒤엉켜 피투성이가된채 싸여있었고 일부는 추락순간창밖으로 튕겨져 나와 계곡에 내팽개쳐지기도 했다。부상자들은『사람살리라』고 비명을 질러댔고 차체안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흘린피가 흥건했다。

추락한버스의 차체는 앞부분이 동개졌고 엔진이내려앉았으며 의자와 문짝은 모두 뜯겨졌다。

[구조] 사고순간을 목격한 택시운전사 金明均씨와 山城근무를마치고 하산하던 長箭2洞파출소 소속 최계환일경(21)등 6명의 전경대원이 추락직후 구조작업을 벌이기 시작、부상자들을 지나가던 택시등에 태워 인근 大同병원、녹십자병원、현대병원、명동병원등에 후송했다。부상자구조는 하오 5시50분께 끝났다。

택시운전사 金씨는 10여명의 부상자를 실어날랐는데 그의 옷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피로얼룩진「엿가락 버스」추락때의 충격으로산산조각이난 버스내부。참사순간을 말해주듯 바닥과 부서진좌석 곳곳이 피로 얼룩져있다。【釜山=金龍逸기자찍음】

整備主任 구속
"양호하다" 형식적 점검

[원인수사] 경찰은 22일 밤 사고버스를 東萊보성공업사로 끌고가 정밀검사를 실시、라이닝이 달아 없어지고 휠실린더캡 파손으로 브레이크가 터져 사고가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버스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휠실린더 피스톤이 라이닝을 압박、멈추도록 돼있는데 라이닝이 닳아 피스톤이 너무 많이 빠져 나와 기름이 샜고、또 실린더캡부분이 깨져 역시 기름이 새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통평지를 달리는 차는 40일만에 라이닝을갈아야하고 이번사고노선처럼 굴곡과 경사가심한곳에서는 최소한 2주에1번 라이닝을갈아주어야하나 이를 지키지않아 사고가난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에따라 이회사 정비주임 崔大林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회사의 2급정비사 崔大林씨는 매일점검하기로된 일상점검을 소홀해 사고당일아침에도 버스의 브레이크를 밟아보기만 했다는것인데 11월 일상점검기록부에는 24개점검부분이 모두 양호하다는 V표시를 형식적으로 해두었다는것。

◇숨진 운전사 孫春一씨

◇구속된 정비사 崔大林씨

死亡者에 조의금

한편 金武然부산시장은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사망자 1명당 20만원의 조의금과 부상자 1명당 5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사망자명단

▲황영운(31·동양건설토목과장·부산東萊區蓮山洞6의1849)▲박창동(60·부산中區大廳洞 새들맨션403호)▲이청상(42·동양건설이사·삼익타워아파트)▲조현남(42·동양건설사업부장·東萊區社稷1洞21의18)▲조용수(10·〃)▲김선회(20·여·부산南區大淵5洞328)▲가연희(50·여·세탁업·부산中區東光1街1)▲장정구(40·어시장구내이발사·부산南區戡蠻洞143)▲辛秀南(40·한국일보출판국부산영업소차장·부산東區門峴洞43)▲장필행(32·여·부산南區남천삼익아파트1213동208호)▲이임선(59·여·부산中區東光洞1街1)▲구영회(57·남·서울九老區始興洞524의28)▲金잠복(29·부산東萊區上洞465의4)▲김영태(10·東萊區金城洞1241)▲박경태(47·동양건설총무과장)▲孫春一(42·사고운전사)▲유돈익(67·부산影島區靑鶴2洞428)▲조영훈(2·부산釜山鎭區田浦洞32통1반)▲정인순(35·여·〃)▲이동춘(54·부일석유감사·부산南區廣安洞1061의31)▲이영태(58·전조선직부사장·부산東萊區福泉洞380의10)▲구한식(48·노동·부산海雲臺區盤松2洞22의42)▲지준순(38·여·부산南區大淵3洞57)▲김상수(26·상업은행西部지점·影島區蓬萊洞1街44)▲임복순(60·여·東萊區溫泉2洞849)▲이춘자(40·海雲臺區盤松2洞22의42)▲구상용(11·〃)▲22이 김정옥(19·동양건설사원·南統營郡삼덕리336)▲한경옥례(35·여·부산中區東光洞2街9)▲鄭玉子(25·여·대한생명경리직원)▲조영선(40·釜山鎭區蓮池洞 녹음맨션505호)▲이숙희(24·여·동방생명직원·北區嚴弓洞320)▲신원미상외여자(대동병원안치)

◇중상자명단

▲강해숙(30·여·회사원·釜山鎭구田浦3洞)▲정순남(33·여·회사원·東萊區양정2洞)▲입영우(45·상업·影島區新仙洞신선아파트A동502호)▲김연호(29·아용사판매과장·東萊區安樂동109호)▲김순회(27·회사원·南區龍塘洞2)▲진성호(21·여·東萊區金城洞964)▲이화자(34·여·中區중앙동1街24)▲한정열(20·여) 釜山鎭區草邑洞151)▲신회숙(20·여·蔚州郡三南面강당리)▲박영진(45·東萊區明倫洞692의1)▲정태선(45·東萊區安樂洞631)▲이상백(45·釜山鎭區伽倻洞654의9)▲김계옥(32·여·南區戡蠻洞143)▲배부자(21·여·산성교통안내양)▲오순자(40·여·南區牛岩洞189의1719)▲권오신(40·南區 삼익아파트비치타운205호)▲김태식(29·정비공·北區嚴弓洞468의2)▲최순경(35·여)▲김선희(20·여·東萊區水安洞水安아파트402호)▲조명화(21·여·동양건설경리·南區門峴洞310의9)▲김규진(48·東萊區長箭洞237의28)▲김장호(30·회사원·東萊區漆山洞67의20)▲조용제(14·학생·東萊區社稷洞18)▲장영택(24·여·대한생명보험·釜山鎭區양정洞32의107)▲양효숙(23·여·〃·東區水晶洞493)▲정영곤(28·예비군중대장·경북月城郡乾川邑松仙里339)▲최병규(25·釜山鎭區양정2동224)▲이정태(33·동양건설건축과장·東萊區溫泉3洞1535의46)▲최영자(39·여·中區東光洞1街1)▲반대민(34·南區南泉洞·삼익아파트208호)▲주형(2·〃)▲[illegible]

一家3명 沒死하기도
2살아들 껴안고 숨진 어머니

[피해자] 이날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휴일을이용、직장단위、가족단위로 놀러나온 행락객들이다。

東陽건설직원 20여명은 이날 야유회를 나왔다가 이 버스에탔던 이사 이청상씨(42)등 5명이 사망하고 건축과장 이정태씨(38)등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업무부장 조현봉씨(42)는 용재군(14)、용수군(10)등 두아들과 함께 왔다가 용수군과 함께 숨졌다。

구한식씨(48·海雲臺區盤松2洞22의42)는 부인 이춘자씨(40) 아들 상용군(11)등 일가족이 함께놀러왔다가 모두 참사했고 정인순씨(35·여)도 아들 조영훈군(2)과 함께 숨졌으며 반대인씨(34·南區南泉洞 삼익아파트1213동28호)는 부인 장필행씨(32)와 아들 주형군(2)과 놀러왔다 부인을 잃고 부자는 중상을입었다。

부일석유 감사 이동춘씨(53)등 개구리산악회 회원 10명중 6명도 이버스에 탔다가 4명이 참변을당했으며 이화자씨(34)등 동네계원 5명도 놀이를왔다가 李씨를 뺀 나머지 4명은 모두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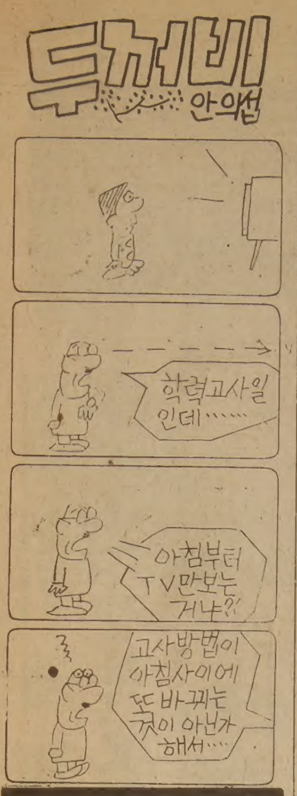
[사고버스] 사고를 낸 버스는 지난해 9월10일 기아산업에서 출고한 32인승 아세아중형버스로 지난 9월3일 광진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갑종정비점검을 받았다。

이회사는 지난해 3월25일 중형버스 5대、대형버스 12대등 모두 17대로 부산시내 버스영업허가를 받아 중형버스는 사고를낸 노선인 長箭2洞—山城간을、대형버스는 2대로 자가용 유상운송면허를받아 지난해3월까지 長箭2洞—山城구간을 운행해왔는데 주민들이 시당국에 시내버스정기노선개설을 진정해 정식노선허가가 나왔는데、당시 시당국은 이노선이 적자일것으로 보고 시내를운행할수있는 200번노선도 함께 허가해주었다는것。

회사대표는 裵씨로 되어있지만 실질경영은 남편인 崔錫敎씨(46)가 맡아왔다。

경영주측은 회사설립에 앞서 지난70년 마이크로 버스 長箭2洞—溫泉간을 운행해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結婚式場전문털이 14명 구속

7개派 26명적발 賀客가장 祝儀金 슬쩍

서울地檢

서울지검 형사1부(朴鍾喆부장·金大權검사)는 23일 서울시내 각결혼식장을무대로 하객을 가장、축의금봉투만을 훔쳐온 전문절도단7개파 27명을 적발、이가운데 1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시내30여개소의 예식장、교회、성당、학교강당등 결혼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지금까지 훔쳐온 축의금액수는 밝혀진것만도 2천5백여만원에 이르며 피해신고가 제대로 될경우 수억원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절도단중 규모가 가장큰「동철파」의 경우、두목 金東哲(32·수배·서울冠岳區奉天4洞260의11)과 鄭選柱(33·구속·경기南楊州郡九里邑仁倉里山12)李俊九(47·구속·전과11범、서울龍山區靑坡洞1街95)등으로 조직돼 서울시내중심지의 鍾路예식장、明洞성당등 20여개 예식장에서 1백47회에 걸쳐 2천1백여만원을 훔쳐왔다。

또「미스터리파」는 李光河(41·구속·전과11범、서울恩平區新寺洞41의17)金武京(45·구속·전과6범、서울東大門區上鳳洞257)이 역시 시내중심지 장미예식장등지에서 30회에 걸쳐 1백90만원을 훔쳤으며「딱부리파」의 경우는 裵治男(36·구속·전과4범、城南市太平1洞79의32)金學京(39·구속·전과7범·서울冠岳區鷺粱津洞302의208)李承國(43·구속·전과11범·서울城北區東仙洞1街72의2)등이 永登浦와新村일대예식장을 무대로 10여회에 걸쳐 20만원을 훔쳐왔다는것이다。

毒劇物휘발유 量産

톨루엔섞어 2億어치팔아

【光州=聯合】光州지검 수사과는 23일 휘발유에 솔벤트와 독극물인 톨루엔을 섞어 주유소에 팔아온 李承柔씨(51·光州市北區雲岩洞487)등 5명을 석유사업법위반및 독극물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光州市北區 東林洞에 동화화학사라는 회사를차려놓고 솔벤트와 농약원료인 톨루엔을 휘발유에 섞어 지금까지 2천76드럼을 만들어 전남북일대 50여개소의 주유소에 드럼당 10만~11만원씩 받고 모두 2억3천3백91만원어치를 팔았다는것。

이들은 이같은 불량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해 드럼당 2만~3만원씩 모두 3천9백3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주유소에서는 이 불량연료에 다시 휘발유를 50% 비율로 섞어 드럼당 14만원씩에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과 거래해온 전남북일대의 50여개 주유소 명단을 파악、관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오늘 大入學力고사

南部 포근、서울 零下2도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가 24일 전국 4백6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에 앞서 수험생들은 23일 하오 각고사장별로 실시된 예비소집에나가 수험표를 교부받았는데 24일에는 상오 8시3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한다。

24일 전국의 날씨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다소끼겠고 기온은 서울지방이 영하2도를 기록、중부지방은 다소 쌀쌀한편이며 남부지방은 영상의 날씨를 보이겠다고 중앙관상대가 예보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경찰차량을 총동원、원거리수험생、고사장을 잘못 찾거나 수험표를 집에두고온 수험생들을 태워주도록하고 교통혼잡지역에 경찰관을 배치、수험생이 먼저 차를 탈수 있도록「수험생 먼저 태워보내기운동」을 전개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또 周永福국방장관도 수험생들이 지각으로 시험을 못치르는 사례가 없도록 장비등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각 군헌병에 특별지시했다。

4億원 안주면 롯데호텔 爆破

20代범인 검거

서울南大門경찰서는 23일 롯데그룹회장 辛格浩씨에게 편지와전화로『4억원을 주지 않으면 롯데호텔과 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金泰勳군(20·무직·서울恩平區水色洞137의5)을 공갈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金군은「4억원은 롯데건물에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다。수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조건을들어주리라고 믿는다。호텔1층로비로여비서를 통해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이날 상오9시10분께 롯데백화점1층 우편함에 넣은후 그룹비서실장 車敏雨씨(40)에게 전화를 걸어『회장님앞으로 편지를 보냈으니 내용대로 해줄것을 부탁한다』고 협박했다。

金은 이날 하오2시50분께 다시 전화를걸어 다른장소로 옮길것을 제의、車씨가『만나서 이야기하자。26층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자 사무실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J군 두번째出頭요구

女大生피살 "계속不應하면 連行할터"

J군아버지 "허위自白…警察소환 응할수없다"

상명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3일 용의자 J군(21·K대 3년)에게「24일 상오 9시까지 수사본부에 나오라」는 내용의 2차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19일 1차소환장을 보냈다가 J군이 불응하자 다시 소환한 것인데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24일 3차소환장을 보내기로했으며 그래도 오지 않을경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연행할 방침이다。

그런데 J군의 부모는 지난21일 江南경찰서에 출두불응이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16일동안의 불법감금으로 정신적 타격이 큰데 사건의 획기적 전환점이 없는한 지금까지와 똑같은 조사를받기위해 경찰에 출두할수 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군의아버지(47)는 경찰의 2차출석요구에 대해 이날하오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내아들이 경찰에 연행됐을때 16일동안고문을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바에의해 법관의 구속영장이나 검사의 소환이외에는 경찰의 소환에는 응할수없다고 밝혔다。

SUN—LIFE
생명보험.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김신명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일어나세요, 범스테드씨!" "어? 뭐라고?" "커피마실 시간인데도 주무셨단 말예요!" "네말이맞아…이런!" "하루가 아주 긴것 아니란 말이야!"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거 구 장

저희 거구장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가 거구장을 새로 경영하게 되었음에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오며, 과거의 미숙한 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한 영 올림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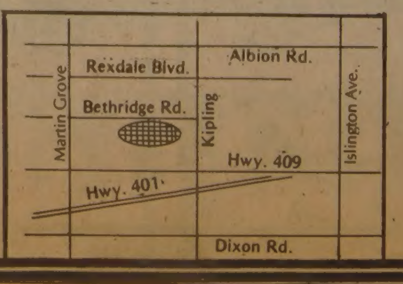
巨 龜 莊

회갑·생일파티·동창회등 각종피로연

●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 예약은 염가로 봉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오전 11시30분~새벽2시까지
토, 일 : 오후 2시 ~ 새벽2시까지
금, 토, 일 오후8 : 30부터 신현회와 그의 악단출연



東學 布敎원동력은 崔水雲의「龍潭遺詞」

4·4調…得道의 神秘 증언

韓國思想硏 내일 발표회

한국思想연구회는「韓國思想」誌 창간25주년을 맞아 25일하오2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한국사상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발표회에는 李炫熙교수(誠信女大·국사)가「東學사상과 독립사상」, 鄭在鎬교수(高大·국문학)가「東學歌辭의 형식과 사상」, 金昌洙교수(東國大·국사)가「全琫準과 東學혁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가운데서 鄭在鎬교수의「東學歌辭의 형식과사상」을 간추려 소개한다.

東學歌辭의 범위는 水雲이 지은 龍潭遺詞에서 비롯하여 義菴이 지은 夢中問答歌등 2편,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수집, 간행한 東學歌辭2冊, 그외 寫本으로 전해오는 미발표 歌辭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것은 역시 龍潭遺詞이며 이를중심으로 그형식과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나 水雲이 지은 대로의 龍潭遺詞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있다. 現傳하는 最古本은 東經大典이후에 나온것으로 水雲死後 15년간 口碑로 전해오다 문자로 정착되었으나「遺詞」라는 이름도 이때문에 생긴것같다.

그러나 龍潭遺詞의 내용은 변하지않은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의 내용을 보면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말할수있다. 表現面에 든 고찰을한다면 전체의27%가 교훈적인것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得道에관한것으로 22%, 그의생애, 世人의 비방에대한 해명이 각각 18%, 14%의 순으로 되어있다.

형식을 보면 4·4조의 律調가 정기적 지켜져있으며 律調의 분량은 4·4調가 우세하며 길이는 거의 1백편내외로되어있다.

實的인 고찰을 하자면 ①水雲의 위대함을 노래했고 ②得道로 造化를 얻었음을 노래했으며 ③새시대의 전개를 예언했다. 또 ④東學에 入道한 그날부터 君子가 될수있다고 했으며 ⑤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을 약속했고 ⑥修道하는 방법의 간편함과 ⑦國運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노래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東學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널리 퍼지게된이유를 이해할수 있는데 그원동력이야말로 바로 이龍潭歌辭라 할수있다.

◇鄭在鎬교수

北韓·泰國쟁패 킹스컵 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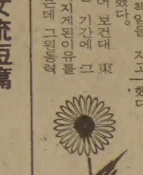
【방콕22日AP=聯】북한과泰國이 제14회킹스컵대회 결승전에 진출, 24일 패권을 놓고 겨루게 됐다.

북한은 22일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속행된 준결승 2차전에서 中共과 0-0으로비겼으나 지난 20일 벌어진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기 때문에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다.

한편 泰國은 이날 경기에서 폴란드에 1-0으로 패했으나 1차전에서 폴란드를 2-0으로 꺾어 종합전적에서 앞서 역시 결승전에 진출했다.

■送年女流短篇 내 발에 등불 <1>

梁貴子 作
金光培 畵



바람부는 거리에 나섰을 때, 당신들은 곧장 돌아가고 싶어지리라. 어디든, 무엇이든 따뜻한 바람막이를 찾아 돌아 달아나고 싶어지리라. 시의 그늘과 그늘 사이에 복병(伏兵)처럼 숨어 있는 바람의 매서운 손길. 누구든 사람들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황량한 겨울에, 그 당신 속의 하나에 더욱 뛰어 갈아나고 싶은 그녀가 있었다.

내가 그녀를 발견한 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지닌 그 속의 끈, 질긴 유대(紐帶)의, 비롯됨이리라. 모든 일의 시작이 다 그러하듯이 오ㅅ…처음은 대단히 미미한 징조로 시작되었다. 아니, 징조라 할 것도 없는 아주 작은 기척을 그나마라도 내가 감지하고 주의를 기울인 것만 해도 이미 운명이라 부를만 했다.

아아, 운명이라니….

그 말이 주는 섬뜩하면서도 절제하는듯한 울림은 과연 그녀에게 적당히 어울리기는 하였다. 게다가 그 운명은 밤에 시작되었다.

아직도 떨어질 나뭇잎이 있었다. 십이월을 앞두고도 잔광(殘光)은 나뭇잎 근처에서 일몰 때까지 천연스레 웃어주었다.

겨울은 느림보의, 그래서 더욱 변의 두께에 몸이 움츠러지는 겨울햇살은 도시의 귀퉁이마다 미진하게 괴어있다간 금새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 어둠과 함께 거리에, 빌딩에, 길가의 좌판(座板)에 깔리는 추위는 대단히 서먹서먹 했다. 우연히 발밑에 깔리는 낙엽의 야윈 비명 이랄지, 바바리 코트의 여자를 종아리에 들혀서 오는 소름돋는 삭풍은 켜지는 불빛 속에서 자주 길을 잃고 사람들을 예게로 덮쳐왔다.

서먹서먹 하여 처치 곤란한 추위의 한 가운데서 나는 난감하였다. 배고픔과 추위, 이런 살벌한 지경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주머니 속엔 이달치 월급이—마지막 월급이기도 한—고스란히 잠겨져 있어 적당하게 개봉되고 뿌려지길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난감하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스치는 길바닥마다 한 가족의 생계가 펼쳐져 있었기에 더욱 스산했던 그 어둠과 바람을. 일류제품임을 강조하는 가방 장수, 반질반질한 기계에서 뽑아내는 〈고급빵〉 장수, 물론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군고구마에 군밤. 그리고 옛목판 옆에는 길바닥에 양말을 쌓아두고 연신 소리쳐대는 아낙이 있었다. 그 아낙의 어깨 너머로 서있는 그녀를 나는 보았다.

푸른 신호등이 야기하는 밀물같은 움직임이 끝나고나서도 여전히 그녀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몸에 씻긴 조약돌처럼 홀로, 오똑 남아있는 그녀는 잠은 순간 나를 매혹했다. 내가 가진 난감함은 일순 그녀에게로 송리듯 옮겨가버려 사라진 듯했고 나는 아무 작정없이 그녀 앞으로 이끌리듯 다가가 섰다.

그녀가 주춤 옆으로 비켜났다. 나는 꼭 그만큼 더 다가섰다. 젠장할, 이 추위라니. 나는 괜히 까닭없이 불끈 화가 치솟는 것같아 입을 열었다.

『도와드릴 일이 있읍니까?』

그녀가 나를 보았다. 추위가 닦아놓은 조그만 얼굴은 의외로 명랑했다.

流星의 賊 <24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⑧

이어 8월 4일 선조는 도승지 조인후(趙仁後)를 불러 다음과 같은 전교를 대신들과 비변사(備邊司), 예조(禮曹)에 내리게 했다.

『서로 통신(通信)하라는 일본의 청을 우리는 해로(海路)가 험하다는 핑계로 매번 거절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엔 대마도주의 아들 종의지로 하여금 해로의 안내를 시키겠다고 청하여 왔다. 이것은 우리의 핑계를 위한 것이다. 고래로 우리와 일본은 일왕일래(一往一來)하여교제하여왔던것인데근간중절되었었다. 그러나 일본엔 신왕(新王)이 섰다고 했고, 그 계기로 서로 내왕하자고 청해온 것이니 달리 그 의도를 의심할 것이 못된다. 더우기 풍파의 난(難)으로 이유를 삼는다면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풍파의 난은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구실을 거듭하다간 창피와 원망을 사게 되어 화호(和好)가 끊어짐으로써 우리의 영토를 침범할 이유를 만들게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계략(計略)이 있다. 을묘년(乙卯年=1555년)에 왜구(倭寇)가 처들어 온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때 손죽도(損竹島)의 변장 이대원(邊將 李大元)등을 죽이고 우리의 백성들을 납치해 갔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때그 일을 저지른 적의 괴수 4·5명과, 그들과 공모한 반적사화동(叛賊沙火同), 이들을 붙여 둔 오도(五島), 평호(平戶)의 양도주(兩島主), 그리고 끌려간 우리 사람들을 모조리 돌려보내 그들의 진실로 화친하고자 하는 뜻을 보인다면, 풍도가 심하고 여로가 험난한 것을 무릅쓰고라도 사신(使臣)을 보내겠다고 하면 문사(文辭)도 좋고 명분도 분명해서 좋지 않겠느냐』

8월11일, 이 전교에 의하여 예조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엔 이품직(二品職)이상의 조신들이 모였다. 그 회의에선 의론이 백출했다. 어느 사람은 명나라에 보고한 후, 그 허락을 받고 통신사를 보내자고 하고 그런것까지 명나라에 고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수찬 허성(許筬)의 말을 좇아 전교대로 시행해 보자고 일단 결론을 내렸다. 전교대로 시행해 보자는 것은, 반역자 사화동과 왜구의 괴수를 박송(縛送)하라고 먼저 요구해 보자는 것이다.

8월28일 인정전에서의 일본사신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사화동들의 박송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국사 현소(日本國使 玄蘇)는

「입구일사(入寇一事)는 아는 바 아니옵니다만 귀국의 반민(叛民)이 오도(五島)의 왜(倭)를 끌어들여 변도(邊島)를 겁략(劫掠)했다면, 마땅히 박송할 것인즉,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현전 궁감광어 처단된 것을 본 현소일행(玄蘇一行)은 어떤 수단으로서건 허행(虛行)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내심은 편하지 않았다. 기감이 센 수길이 뭐라고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보단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나의 고향은 한국이다

나의 이력서

〈원목·元一漢〉

元一漢 ①

나는 미국사람이지만 사실상의 고향은 한국이다. 미국사람이면 미국이 고향이지 무슨 말인가하고 의아할지 모르나 나는 분명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일하고있다.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따로 없으니 내고향은 한국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한국과의 인연은 할아버지인 호러스·G·언더우드1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아버지가 즐겨쓰셨다는 한국이름은 원두우(元杜尤·1859~1916년)로 그의 출생지는 미국이 아닌 영국 런던이었다.

英서 美移住…목사가 되어 宣敎길에

우리 증조부인 찬·언더우드는명성있는 과학자이며 발명가이어서 왼링톤예회의 보장을 받은 분이고 또한 열성있는 기독교인으로 교회사업에도 성심을 다했다.

그런데 찬·언더우드는 동업자한 사람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가산을 모두 잃어버리매 미국으로 건너가 새출발할 결심을했다. 1872년 혼자 도미하고 자녀들은 몇년지나 뒤따른 것으로 돼있다.

그렇게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된 나의 할아버지는 뉴욕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계속했고 졸업식장에서는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했다고한다.

그는 졸업후 시·뉴·브런스윅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 목사가되었다. 신학교입학때부터 강한 자의에 의해 선교사가 되려고 결정했던 것이다.

당초 나의 할아버지는 인도에 가기로 계획하고 그곳에가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1년간 그곳 언어와 의학공부를 준비했다.

그러나 원두우를 한국땅으로 보내시고 자하는 하느님의 뜻은 이미 그에게 임하셨다. 한국에 선교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그곳에 갈 사람이 없다는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국북장로교 선교부는 1884년7월 원두우를 초대한국선교사로 임명하게 됐고 그해 12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이듬해 1월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에 도착한후 한국에 가는 기선을 기다리느라고 지체하게 되었다. 이동안 한국인으로 초대교인의 한사람인 李樹廷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웠으며 한국말「마가복음」을 들고 지금의 仁川에 도착한것이 1885년4월5일 부활절이었다.

◇元一漢박사가 延世大구내에 세워진 그의 할아버지 元杜尤목사 동상앞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1885년 韓國최초의 牧師로 이땅에 定着

이때 북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목사도 함께 仁川에 도착하였으나 처지로 인하여 부부이그 배로 일본에 돌아갔다가 그후에 입국하였다.

당시 두 선교사중에 누가 먼저배에서 내려 한국땅을 밟았느냐는문제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여러가지 농담이 오가고있다. 둘이서 나란히 손을 잡고 내렸다는 말이 있는가하면 레이디 퍼스트인데 부인이 앞서고 선교사들은 그다음으로 내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것이다.

어쨌든 배에서 누가 먼저 내렸을 것이라는 따위의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에있는 미국공사관에 연락할길이 여자는 미없다는 대답이어서 동부인이었던 아펜젤러 목사는 그배로 일본에 되돌아갔다가 몇달후 다시 와야했다.

그러나 당시 총각인 나의 할아버지 호러스·언더우드목사는 그길로 바로 서울로 들어와 도착 3일만에 의사 알렌(한국명 安連)이 개설한 광혜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침으로써 한국에대한 봉사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국개신교의 시작을 알렌이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1884년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그는 의사로서 선교에 임한 셈이나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는 최초의 목사였고 대를 이어 이땅에 살면서 목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랄수 있을것이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수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 김

약 국

SUPER × DRUGS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429-4117
이 요 한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기 타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
통역: M4A 2R1 ☎: 759-9505(5시이후)만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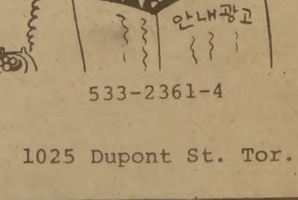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탁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양 장 점

센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비즈네스는 전화가 바빠야 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는 귀하의 전화를 바쁘게 해드립니다.

QUALITY AD. = QUALITY COMPANY

THE KOREA TIMES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S
533·2361~4 광고부일동: 송 광 호, 최 성 조, 곽 영 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넛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금, 토근무, 오후11시~아침7시.
☎ : 482－4088

스토아 헬퍼구함(주중)
KINGSTON & MIDLAND
☎ : 266－6355

FULL TIME가게 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 536－4533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목, 금, 토, 일)
DON MILLS와 SHAPPARD
☎ : 491－9701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크럽자켙만들 재봉사 모집
☎ : 241－5348

FULL TIME 쿡 구함
주 6일일함.
☎ : 421－6016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KEELE & WILSON 지역 가게에서 일할 경험자.
FULL OR PART TIME HELPER 구함
☎ : 221－2084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BATHURST & QUEEN근처 : 방6개 있는 집. 좋은조건
금방 팔 수 있고 좋은 가격과 복덕방 안낌
☎ : 445－9486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애스)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급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장비일절 최저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699－2442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 $29000
☎ : 423－9899

스토어 장비 팝니다.
1500~2000스퀘어피트 꾸밀수 있는 장비임.
☎ : 886－2743
881－2019

COMMERICIAL BUILDING FOR SALE
2 STORY BRICK DETACHED WITH FULL
BASEMENT GARAGE & PARKING FOR STORE
& 3 BEDRM APTMENT OR OFFICE. VARIETY
BUSINESS EQUIPMENT & STOCK OPTIONAL
☎ : 694－7781

급매 혹은 RENT(VICTORIA PK×FINCH 근처)
고급주택지 4BED ROOM, 4BATH ROOM,
LINK HOUSE. 3STORY. 2400 Sq.ft.
지하실 완전꾸며짐. FIRE PLACE, BALCONY.
가격 : $110,000 ☎ : 862－1433. 493－8792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건물및GROCERY STORE 매매
매상 : $3,500~4,500
☎ : 535－0028(MR. KIM)

도나스샾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 ~ 4PM)
1－735－7748(6 : 00PM ~ 9 : 00PM) Mr. 한
WELLAND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
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집 · 방세 · 하숙

631A BLOOR ST. W. 2층 사무실 SUBLET합니다.
12월1일 입주가능
☎ : 535－6004

BLOOR & DUFFERIN
2베드룸, 교통편리
☎ : 537－5164

태 권 도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 송 학 태 권 도 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감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6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 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 4441 미스터 김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삼복식품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보 석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남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82(B), 534－3346(R) MR. LEE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추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강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용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6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
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9 김 남 집

꽃 집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